

戶戶富實 人人和樂

호호부실 인인화락

집집마다 부유해지고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

-정조-

www.swcf.or.kr



특별한 이야기 <지식>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 내가 달라질 때 또 다른 읽이 시작된다.

SUWON CULTURE & ARTS MAGAZINE

인인화락

人 人 和 樂 | 2021 Autumn Vol.34



특별한 이야기 <지식>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표지 일러스트 디어썸마(최유진)

SUWON CULTURE & ARTS MAGAZINE



人 人 和 樂 | 2021 Autumn Vol.34

CONTENTS

수원문화예술매거진
인인화락人和樂
2021 autumn Vol.34

통권 34호(비매품)
발행 2021년 9월 30일
등록번호 수원 바00035
등록일 2012년 11월 14일
등록번호 ISSN 2287-7479
발행주기 계간(연 4회)
발행인 길영배 편집인 최용진 편집기획 김민주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주소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남창동)
전화 031-290-3600 홈페이지 www.swcf.or.kr
기획·디자인·제작 더에이치

『인인화락』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특별한 이야기 <자식>

- 06p **인트로**
지식(智: 알다)·열다(열다): 끊임없는 알, 배움의 연속

- 08p **수원탐구**
기업의 미래, 지식재산, 지적재산을 위한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12p **소소한 만남**
인재를 보는 안목과 지식 경영 리더십 갖춘 정조
정치학 박사 박현모

- 16p **공간과 사물**
일상의 배움, 학습의 나눔
사람이 반가운 평생학습 도시 수원

- 22p **자아의 발견**
내 기억력은 건강할까?

- 46p **예술인문학**
나는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 따윈 없다고 생각해
강희영 신작 장편소설『녹색 커튼으로』

너와 나, 우리의 일상

- 26p **문화탐방 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x 수원화성문화제, 두 축제의 정체성

- 30p **문화탐방 2**
선선한 가을에 찾아갑니다_2021 수원연극축제 숲 속의 파티

- 34p **문화탐방 3**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 38p **즐거운 수다 1**
유머 찾아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여행자_서현 작가

- 42p **즐거운 수다 2**
수원시민들의 일상에 공공예술로 낯선 질문을 던지다
‘도시총·동 예술총·동’ 예술 감독 박찬국 작가

- 48p **수원나들이**
주민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열린 공간_수원 학습동지 시설

- 54p **칼럼**
대선 후보도 출을 주는 솟품 콘텐츠 시대

- 58p **집학사전**
영화와 음악 그 사이의 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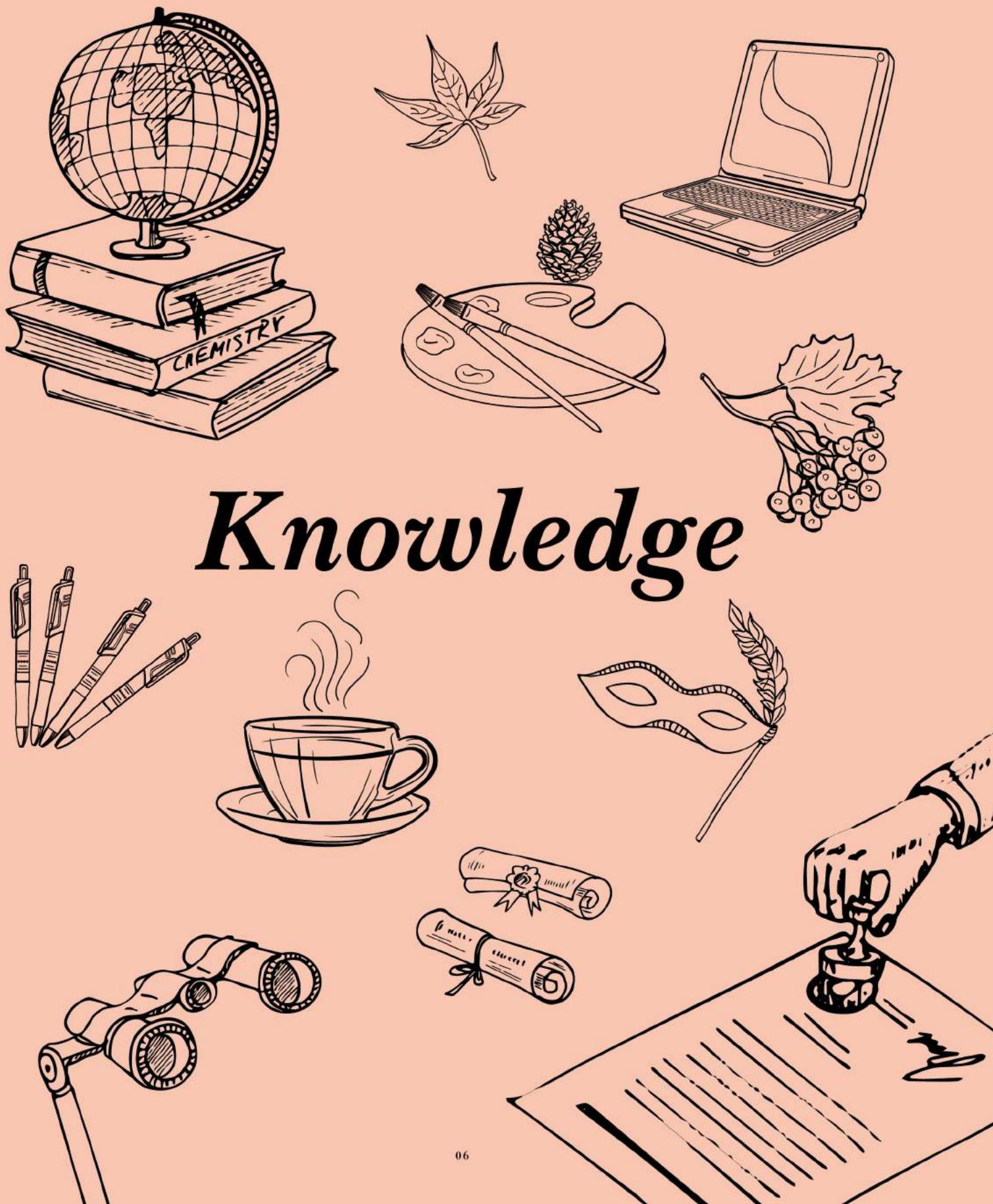
- 60p **싹틔움 소식**

- 65p **재단소식**

- 65p **독자의 편지**

- 66p **SWCF 톡톡**





Knowledge

지식(知: 알다 識: 알다)

끊임없는 암, 배움의 연속

지식이란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넓어 명료하게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에 대해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이라고 칭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직접 겪은 경험과 교육, 책,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등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은 물론,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 깨달음, 신념이나 신앙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식의 연장선에 있다. 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불편할 때 울면 엄마가 해결해준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얻은 지식이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조금씩 지식을 쌓아간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배우기를 반복한다. 단순히 학습에 의한 배움만이 아니라 호기심을 풀거나 살면서 깨닫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 바뀌게 되는 것들 또한 배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며 배우게 된다. 먼 과거에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을 것이며,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에는 그 사용법 또한 배울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논어나 소학, 대학, 중庸 같은 것들은 요즘 배우지 않지만,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시대'라 불릴 만큼 축적된 지식의 양이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인자심리학자 마이클 토마셀로의 말처럼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복잡하다똑똑하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또 현대에는 <학문>적 지식을 넘어 오히려 <지능>라는 지식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 다시 묻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수많은 학자가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인간을 무엇이 예외적 동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그렇게 내놓은 답들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너무 제각각이지만 그중 여러 학자가 '창의성'을 꼽았다. 「크리에이티브의」 저자 아우스틴 푸엔테스는 '돌에서 칼날을 떠올린 순간 '창의성'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한다. 이런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은 끝이 없으며, 아직 우리가 배울 것은 많고, 무궁무진하기에 앞으로 알게 되는 것 또한 더 놀지 않을까 싶다.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기업의 미래,

지식재산,
지적재산을
위한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오늘날 나를 있게 한, 일등 공신은 지식재산권이었다."라고 밀한 빌게이츠는 원도우와 오피스 시리즈를 판매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1세기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 지식에 의해 부를 형성하고, 트렌드를 선도하기도 한다. 기업에 있어 이런 지적재산은 경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01

'지식재산'이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체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지식재산권'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많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지적재산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에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해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가 있어, 지역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교육·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이 지정한 지역의 지식재산 거점기관으로 전국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중 하나가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다.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는 특허청으로부터 수원지식재산센터(2020년부터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로 명칭변경)를 지정받아 지역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발명인식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라이브러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발명경진대회 등 발명진흥행사 등을 운영했으며,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경영에 드는 비용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기업들이 지식재산기반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IP바로지원'과 'IP 나래 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02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은 기업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를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사업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체산권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시장을 분석하고, 경영전략을 설정하는 한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종합파기지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R&D방향 제시·특허분쟁 리스크 예방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브랜드 전략설정을 통해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디딤돌을 받을 수 있어서 수원지역 기업들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 나래 프로그램'도 우리 지역 창업기업에 매우 인기가 많다. IP 나래 프로그램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과 경영 부문의 융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은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시장과 기술의 트렌드 분석과 경쟁사들의 기술을 분석하고, 창업기업의 R&D전략을 설정하는 한편 강력한 특허권리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 IP 나래



프로그램에 참여한 36개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238%, 고용인원이 231% 증가했으며,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도 180% 증가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IP바로지원,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7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을 창출했다. 지식재산센터의 탁동혁 과장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R&D사업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많은 기업이 사업에 신청해주고 있다고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기업에 지원해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라고 하며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더 많은 기업에 돌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허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특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등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영관점이 바뀌고, 더 나아가 기업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은 대부분 컨설팅 사업으로 컨설팅은 기업과 전문 컨설턴트가 만나 기업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이 가장 좋다. 탁동혁 과장은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이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와의 인연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아쉬워한다. 그래서 지식재산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컨설팅 품질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 내부에 화상회의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이 구비된 화상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했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만큼 비대면·개인 위생·자동화·로봇·무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많은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대면 컨설팅과 비대면 컨설팅을 적절히 활용해 우리 수원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운영 월~금, 9:00~18:00

주소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1층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연락처 031-244-8321

홈페이지 www.ipc.org/suwon



Program

중소기업 IP바로지원

· 사업목적

중소기업 겪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기준 운영(별첨 양식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지원내용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 제공 /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 지원(홈페이지 상세 안내 참고)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지원절차 / 신청방법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ipc.org/suwon)→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자세한 내용) 확인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ipc.org)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 문의 031-244-8321

IP 나래 프로그램

· 사업목적

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강화특허 창출 지원 서비스

· 신청대상

- 수원시,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7년 이내: 2014년 6월 2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전환창업은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년 이내: 2016년 6월 2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창업 및 협력 신청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사용

※ 해당 공고 접수 기준에 따라 협력은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변동됨

· 지원내용

IP(지식재산) 나래 맞춤형 IP컨설팅 - IP 기술전략, IP 경영전략 분야(홈페이지 상세 안내 참고)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문의 위치 등



인재를 보는 안목과 지식 경영 리더십 갖춘

정조

正祖

정치학 박사 박현모

고작 열한 살에, 광기에 사로잡힌 아비의 참담한 죽음을 보고, 노론의 살해 위험에 몇 번이나 시달렸지만, 그는 절제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조현병에 걸리거나 연산군처럼 정치 보복을 일삼는 폭군으로 일탈하고 말았을 정조의 삶, 그런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빠져버렸다.

먼저 정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다산에 관심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라는 책을 보니, 정조가 어전회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정리된 것이 많았죠. 특히 정조가 아전 같은 하급 공무원들을 어떻게 의식했는지 궁금해졌죠. 그렇게 정약용에 영향을 준 정조에게 주목하고 됐고, 「정조실록」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조 시대의 정치세력들, 당시의 문체반정과 학풍,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등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조의 인간적 매력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는 열살 어린 나이에, 광기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참담한 죽음을 목도했으며, 할아버지 명으로 아비 이름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즉위를 반대한 노론의 살해 위협에도 11번이나 시달렸는데 어떻게 그런 절제된 삶과 포용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정조가 당시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단행하고, 지식 경영인의 자질을 지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정조의 일화 중 '시궁창에 더러운 데 핀 꽃을 봐라, 화원에 있는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인재는 좋은 기분이라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천한 신분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닌 신분을 넘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좋은 인재를 써서 나랏일을 하고 싶었고, 그것이 정조가 생각하는 인재 탕평입니다. 조선은 숙종 이후부터 노론이 거의

100여년간 집권해 정조 때는 당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론이 아니면 대부분 요직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가장 소외되던 남인 중에서 이가한, 채제공, 정약용 등을 등용합니다. 또 좌제공 우종수라고 불릴 만큼, 일을 협력해서 끌어가는 남인의 채제공과 나랏일이 되게 하는 노론의 김종수를 두고 두 정승을 중심으로 견제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조가 탕평을 펼치며, 인재를 직접 등용했기 때문에 잘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일에 적합한 인재들과 함께 수원화성과 같은 많은 일을 진행했습니다.

또 정조는 인재를 쓸 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라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가려 하느냐, 이것을 중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봤습니다. 정조는 과거 합격만으로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는 없다며, 규장각 안에 국가에서 일을 맡기면 기획하고 관리하는, 실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특별교육 및 연구 과정인 '초계문신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정조가 추구하는 목표에 잘 따라오고,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규장각의 설치 배경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려주세요.

규장각은 복합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 사도세자와 연결하며 노론은 물론 대다수가 반대하고, 그를 지지한 사람은 노론의 홍국영, 남인의 채제공 등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동덕회'라는 모임인데,

이렇게 소수파로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초반 3년 동안 거의 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문신 중에서 지지세력을 규합을 위해 규장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는 규장각을 통해 문신들을 배출하고, 왕의 정예부대인 장용영을 통해 무신들은 키웁니다. 문무에서 모두 왕의 뜻을 이해하고 힘을 모을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정조의 초반부 중요한 과제였고 그것을 해냅니다.

또 조선은 유교 지식에 통달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신하며, 재야지식인들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세종을 둘 모델로 삼았는데, 세종의 집현전처럼 규장각을 설치해 문신들의 그룹을 만들어 계속 가르치고, 토론하며 왕의 권위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 교육하고 연구하며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규장각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이 집필하신『정조평전』에 '오늘 밤을 새워 끝장 토론을 한다.'는 내용은 마치 조선판 셀전이 연상됩니다. 정조는 말을 잘했나요? 일화를 들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왕이 오후 경연인 '석강(夕講)'을 하면 보통 한두 시간이나 저녁을 먹고 휴식하거나 밀린 업무를 보기로 하는데, 정조는 또 공부합니다. 사실 왕은 편하게 앉지만 신하들은 부복이라고 엎드려 있거든요 더해서 정조가 "누워서 책보는 건 안 좋은 버릇이다. 바른 자세에서 비른 정신이 나온다." 이러니 신하들은 자세도 흐트러트릴 수 없죠. 그렇게 아홉 시가 되면 다과를 나오라 하고 다시 공부하니 한 신하가 "또 어디까지 하려고 하시나?" 뭔죠. 이때 정조가 "과인은 오늘 밤을 새우려 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아끼는 제자이자 신하인 정약용도 비판했죠. "인재를 뽑았으면 일을 줘야지, 계속 숙제를 주고 생도같이 자꾸 꾸짖고 이런 것은 인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또 「정조실록」이나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에 나오는

그의 학문적 세계를 보면 생각이 깊고, 워낙 박식합니다. 그중 정조가 「논어」의 '온고지신'을 논하며 그 의미를 문자, 신하 이유경이 "옛것을 익혀서 그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범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렇지 않다. 초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온고지신의 깊은 뜻은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니, 이유경이 "초학자라뇨 과거 수석 합격하고 공부 깨나 했는데, 대체 전하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정조가 "온고의 고는 옛 고가 아닌 연고, 까닭 고자며 이것은 단지 옛날 책이 아닌 나와 연고가 있는, 내가 읽고 영향을 받은 책, 나에게 의미 있는 책을 의미한다." 하며, '자신'도 "자(지식, 지혜)가 새로워진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대개 읽었던 책이나 글을 다시 익하면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라고 말하며, "언제까지 계속 새것을 볼 거냐. 그동안 배운 것 읽은 책, 경험한 것을 곰곰이 읽고 되돌아보면 내 안목이 높아져서 자가 새로워지니 어떤 것을 봐도 주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 계속 새것만 공부하면 평생 지식의 종이 된다."라고 신하들을 감탄시킵니다.

이렇게 정조가 신하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생각을 바꾸게 하며, 안목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벌서는 것 같으면서도 배울 게 있으니까 따라가게 된 거죠.

정조가 잠도 안 자고 책을 읽을 만큼 독서광이라던데, 어떤 장르에 관심 있었으며, 책을 집필하기도 했나요?

정조에게 큰 영향을 준 책으로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 하나가 '사서삼경'에서 「서경」입니다. 이 책에서 바로 정조의 탕평 기원이 나오고 실제 그걸로 과거시험에 출제도 합니다. 서경에서 황극이 북극성을 의미하는데 북극성이 자리를 잡으니까 못 별들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왕이 자리를 잡아야 신하들이 싸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잡는다는 정조의 메타포를 보여줍니다.



당시 당파의 지도자가 우선시되고, 국가의 이익은 나중에 당파의 이익이 먼저인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끌어오는 책이 「서경」입니다. 또 하나는 주희의 편지 중에서 요긴한 내용 100편을 뽑은 「주서백선」입니다. 이 부분은 노론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조가 일부러 주자에 대해서 강조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보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주자의 책은 예법, 주자가례를 강조하며 왕에게 간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데, 주자의 시는 감성적으로 자기절제, 수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미 그걸 깨뚫고 노론이 강조하는 주자를 바탕으로 하되 시를 통해 너희들 함부로 아는 채하지 말고 절제하며 마음을 닦으라고 말합니다.

또 정조는 책을 많이 읽기도 했고 집필도 엄청납니다. 세손 시절에 지은 시만 342편이 될 정도로 풍부한 감수성을 타고났으며, 편찬한 책들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 「군서표기」를 보면 정조가 편찬한 책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를 비롯해 왕의 국정 일기인 「일성록」, 정조의 어록집 「일득록」, 재판에 관한 책 「심리록」, 노무사에 관한 책, 인문학에 관한 책 등 분야별로 책이 있는데, 정조는 89종류에 걸쳐 2,500권의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또 편찬하고자 시도한 책이 4,000여 권이나 됩니다. 그중 이순신에 관한 「이충무공전서」도 있고 「난중일기」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기는 썼지만, 그해의 일기를 모아서 「정유일기」 이런 식으로 연도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충무공의 상소, 장계 등을 다 모아 그에 대한 전서를 컬렉션하고, 전란 중에 쓴 일기를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책에 관해서는 최고의 군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과 정조를 둘 다 연구하셨는데, 학자로서 과거에 같이 일한다면 어떤 왕을 선택할 것이며,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둘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태종을 택할 것 같아요(웃음). 요즘 「태종평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신나게 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태종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신하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따라오면 지지하며 인센티브도 주고, 안 따라오면 좀 혼내는 사람이죠. 사실 세종 때 인재의 70%를 태종이 키웠습니다.

세종의 집현전 학사를 할 것인가? 정조의 규장각 각신을 할 것인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앞에서 고는 사람이고, 세종은

뒤에서 미는 사람입니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한테 좀 기를 복돋아 주는 칭찬하고 다독이면서 믿고 맡기며 큰 욕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정조는 신하들을 끌면서 안 따라오면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규장각에서 가르치며, 문제반정처럼 꾸짖기도 합니다. 둘 다 워낙 학식이 깊고, 토론의 달인인데, 세종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설복시키는 거북이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그 시대에 맞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조가 강하게 끌지 않았더라면 노론이 그렇게까지 신해통공 한다든가 수원화성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양보하고 지지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둘다 같이 일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웃음).

2019년도에 수원에서 정조와 화성에 대해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신 것으로 압니다. 정조 연구에 있어 수원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수원과의 인연은 많습니다. 그중 정조를 수원의 아이콘으로 설정하고 맨 처음 「정조실록」을 시리즈로 강연했습니다. 수원 시민들한테 실록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6회 정도 강의하면서 정조를 강의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신대 김준혁 교수, 무예 관련 김영호 소장 등 정조 관련 다양한 분들도 강의하셨어요. 한번은 '화성에서 꿈꾸다 뮤지컬'을 시연할 때 보니 특별한 상징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정조 하면 달이 핵심이니 뮤지컬에서 달을 상징으로 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었습니다. 나중에 달이 진짜로 중심이 되었고, 포스터도 찌그러진 달을 상징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앞으로 정조 연구라든지, 정조 관련 집필 등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치가 정조」라고 제가 처음에 쓴 책인데, 그 내용은 정치가로서의 정조를 연구하며 비판적으로 보며 정조가 잘못한 점을 지적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정조평전」을 썼는데, 되게 아카데믹한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정조를 학술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한번은 정조와 세종의 리더십을 교본으로 배울 점과 반면교사상을 점을 뽑아서 대중서를 집필해 보려고 합니다. 또 11월 13~14일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AR 증강현실 연동 보드게임 「로스트리·왕의 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소년과 부모,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조선 22대 왕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배우며, 보드게임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

박현모 PROFILE

박현모(朴賢謀) 정치학 박사

한국형리더십개발원 원장 /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정조(正祖)의 칭치사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1년부터 14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정조와 세종, 정도전과 최명길 등 왕과 재상의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미국의 조지마이스터대학교, 일본의 '교토포럼'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형리더십」을 강의하는 한편, 시민강좌 「실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2021년 6월 기

준 3,600여 명 수료).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및 세종리더십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며 대학교 암필수과목인 「세종리더십」을 대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세종처럼」, 「세종의 적술력」, 「정조평전」, 「정조 사후 63년」 등이 있고, 「몸의 정치」와 「휴머니즘과 폭력」을 우리말로 옮겼다. 「경국대전의 정치학」, 「정약용의 군주론」,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왕의 동선과 정치재량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조와 순조」 등 8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일상의 배움,
학습의 나눔
사람이 반가운

평생학습 도시 수원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교육은 삶 그 자체"라고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가 말했다. 그만큼 삶에 있어서 교육은 밀접하다. 교육을 통해 삶을 배우고, 성장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온 마을이 노력하는 도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이다.

※ 운영 시간 등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기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01

수원형 교육: 꿈의학교, 다문화특성화학교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지원, 아토피특성화학교

먼저 수원시는 뉴노멀 시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해 수요자 맞춤의 수원형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그중 학생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올해 수원 꿈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92개 교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57개 교 ▲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 21개 교 등 총 170여 개 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은 꿈의학교마다 신청 접수 마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강 희망자는 '경기 마을교육공동체(꿈의학교) 홈페이지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수원은 2016년부터 6년째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지동초 ▲세류초 ▲남수원초 ▲매산초 ▲화홍초 ▲수원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선정했다. 각 학교는 학교 여건·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특성화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언어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무학년제 한국어 교실' 등을 운영하고, 이중언어 교육도 진행한다. 맞춤형 한국어 집중교육 과정 덕분에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고 있다. 또 특기적성교육, 상담교실 등을 운영하며, 한국 원주민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어울림 교육'도 진행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악기를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한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공모를 거쳐 선정한 학교에 악기 구매비와 강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한 가지씩 악기 연주를 배우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초·중·고교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진행한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우리동네 자연탐구대, 자연미술실



02

글로벌 평생학습: 행복인문학교, 치유학교, Treehouse 방과 후 프로그램, 열린시민강좌

수원은 지난해 OECD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의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을 만큼 활발한 시민 참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2011년 문을 연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크게 평생교육과 글로벌교육으로 나뉘 개발·운영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시민 인문 학습 플랫폼인 '행복인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문학·영화를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치유학교'를 통해 인문학적 차원의 정신적 치유를 돋우고 있다. 또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Treehouse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 계발, 자기주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공학·인문 예술 등의 분야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특히 조영호 관장은 매주 러닝레터와 유튜브를 통해 학습자들과 소통하며 비대면 시대 평생교육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간다. 이 외에도 학습관 텃밭에서 진행하던 현장 중심의 '모두의숲'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열린시민강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코로나 19에도 대응해 지속적인 강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가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기도 했다.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학기별 진행(겨울학기,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대상 수원시민 전 연령(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learning.suwon.go.kr)

주소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문의 031-248-9700(반딧불이 상담실)



모두의숲 텃밭수업



도어스텝

주 요 프 로 그 램 안 내

평생교육

행복인문학교: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담당한 삶을 위한 기초체력을 기르는 과정. 성찰적 삶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강좌·공부모임·시민기획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시민 인문 학습 플랫폼이다.

반율림생활문화학교: 지속적인 취미생활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정. 관심사나 취미를 매개로 시민 교류의 장이 되며, 즐거운 만남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입문통로다.

함께사는학교: 도시에서 느린 삶의 기술

글로벌교육

Treehouse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어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창의력 계발, 자기주도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초과정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로 STEAM(과학·기술·체육, 공학·Engineering, 인문 예술·Arts, 수학·Mathematics) 교육을 진행하는 창의융합교육이다.

Winglish 단체 체험학습: 전 세계에 있는 국제학교 교육자의 모임 Inter-national Baccalaureate®에서 제정한 프로그램인 Primary Years Program™의 융합 인재 교

양궁올림픽 꿈의학교



브라운트리 청작교실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홈페이지 village.goe.go.kr

글로벌 다문화특성화학교

문의 수원형교육팀 031-228-3823

1학생 1악기 뮤직스쿨 지원

문의 수원형교육팀 031-228-2196

아토피특성화학교

문의 수원형교육팀 031-228-3993

육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을 기반으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이다.

Doorstep English: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어 체험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에

게 직접 방문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Arts & Crafts 등의 체험학

습을 진행하며, 수원시 내 유치원과 어린

이집,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원어민 선생님들과 영어체험학습

의 기회를 제공한다.

트원세대의 열린 공간 슬기샘어린이도서관 트원웨이브

수원문화재단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은 7월 13일부터 트원세대(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끼어있는 세대) 전용공간인 '트원웨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트원세대는 어린이의 시기를 지나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취향과 의견, 또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기에 있는 친구들을 말하며, 트원웨이브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트원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열린 공간이란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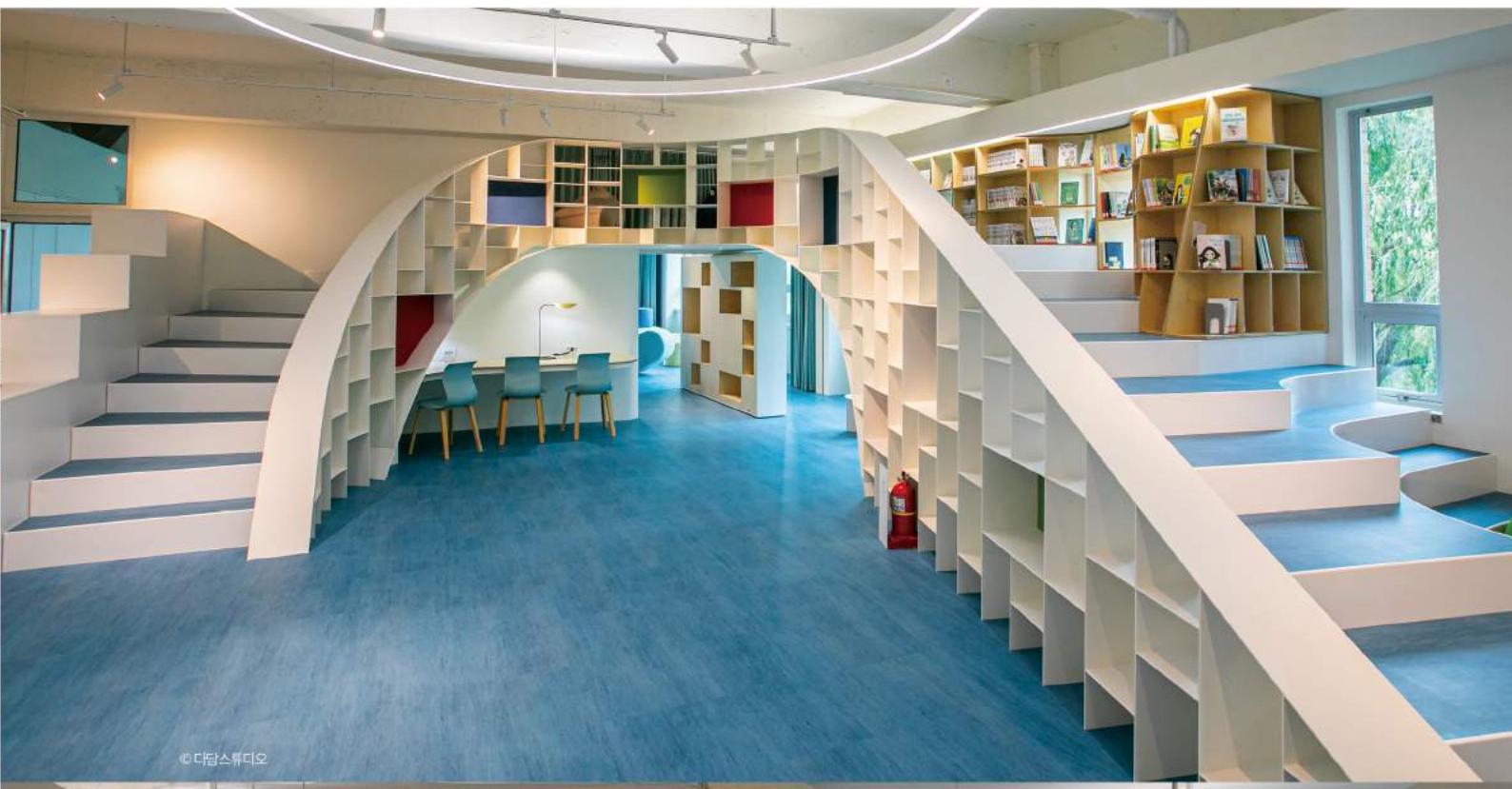
12~16세의 트원세대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트원웨이브를 드나들며 다양한 취향과 콘텐츠를 접하고, 집이나 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경험을 흔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 특히 Anything, Begin, Creative, Dynamic, Exciting 총 5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공간에서 휴식, 만남과 소통, 탐색과 탐험, 표현과 창작이라는 네 가지 핵심 경험과 관련된 독특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트원웨이브는 ▲아이들이 창작한 작업물과 멀티포맷의 자료 컬렉션이 있는 '전시공간' ▲신나게 놀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게임 및 놀이 공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창작공간'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쉴 수 있는 '테라스 공간' 등 다양한 체험존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트원세대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장르문학과 만화, 웹툰으로 서가를 채웠으며, 주제가 있는 컬렉션들로 매번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트원웨이브는 학교, 기관 등 12~16세의 트원세대와 만나는 어른들의 방문을 환영한다. 해당 메일(elee@swcf.kr)로 담당자, 기관명, 방문 취지 등을 써서 보내면 트원웨이브 방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디딤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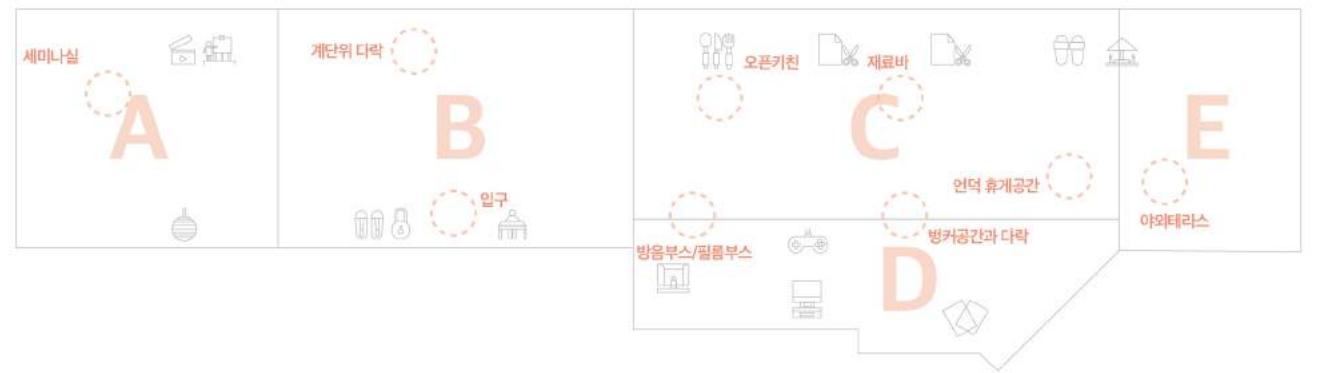
④ 슬기샘어린이도서관 트원웨이브
주소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슬기샘어린이도서관 3층
운영시간 09:00~18:00(*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국기哀정 공휴일)
문의 031-242-6633
홈페이지 www.suwonlib.go.kr/skid/index.asp



© 디딤스튜디오

공간 안내

• Anything	• Begin	• Creative	• Dynamic	• Exciting
함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공연도 하고	다락에 올라 뒹굴뒹굴 책을 보고,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주방에서는 요리를, 창작존에서는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작업하고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해 영상과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오락과 보드게임을 하고	실내 언덕에서 뛰구르르, 하늘 해먹에서 휴식하고, 야외 테라스 에서 푸른 경치를 감상하고



© 디딤스튜디오



내 기억력은 건강할까?

친구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핸드폰을 찾거나, 차 열쇠를 찾으러 온 방을 돌아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다. 이럴 때 걱정되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건망증이나 기억력 감퇴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다. 내 기억력은 어떨지 간단하게 점검해 볼 방법을 소개한다.

Writer 편집실
data 영국의학저널(BMJ) 기억력 테스트

Test!

Test 1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 보세요.

(10점)

본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_____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_____

오늘 몇 월 몇 일인가요? _____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 _____

본인이 태어난 날은 언제인가요? _____

Test 5

'S'으로 시작되는 생물 4개를 적어봅시다.(4점)

Test 9

원을 그린 다음 1~12까지 시계 숫자를 표시합니

다. 그리고 9시 20분을 시곗바늘로 표시해 보세

요. (4점)

Test 2

다음과 같은 문장을 종이에 받아 적어봅시다.

(2점)

“훌륭한 시민은 항상 튼튼한 신발을 신는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머릿속에 새겨둡니다.

Test 3

다음 2가지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3점)

6.25 전쟁이 시작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Test 4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4점)

 $20 - 4 =$ _____ $16 + 17 =$ _____ $8 \times 6 =$ _____ $4 + 15 - 17 =$ _____

Test 6

다음 두 가지의 유사점은 무엇인가요?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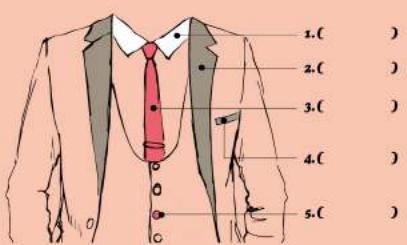
당근과 감자

사자와 늑대

“훌륭한 시민은 항상 튼튼한 신발을 신는다.”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깁니다.

Test 7

각 아이템의 이름을 기입해 보세요. (5점)



Test 8

원을 전부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알파벳은 무엇인가요? (3점)



Test 10

테스트 시작 부분에 기억해두라고 했던 문장이

생각나시나요? (6점)

다시 한번 해당 문장을 적어봅시다.

Test 11

테스트의 답변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전혀 받지 않았다 (5점)

아주 조금 받았다 (4점)

조금 받았다 (3점)

적당히 받았다 (2점)

많이 받았다 (1점)

Result

50점 만점 기준, 몇 점을 받으셨나요?

해당 테스트는 '영국의학저널(BMJ)'이 공개한 기억력 테스트 'TYM(Test Your Memory)' 중 우리나라에 맞게 일부 수정한 테스트입니다. 지난 한 연구에 따르면 50점 만점 기준, 정상인 그룹은 평균 47점, 치매 환자는 평균 33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그룹은 45점 미만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간단 치매 테스트, 시계 정면 그려보기

종이 한 장과 펜 한 자루를 준비한 다음, 주변 사람에게 현재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을 묻습니다. 그다음 종이에 시계 형태를 그린 뒤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을 보지 않고 그립니다. 그림을 그린 뒤에는 옆 사람에게 자신이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학술지 '국제노인정신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시계 그리기 테스트는 치매를 확인하는 비교적 신뢰도 높은 방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

Extra

잠시

쉬어 가는

가을

벤치에서

어느새 올긋불긋 수북이 쌓인 낙엽,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조용히 거닐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진다.
이렇게 못다 이룬 이야기를 살짝 접어둔 채로
늘 그렇듯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려나 보다.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x 수원화성문화제 : 두 축제의 정체성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제58회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해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
두 개의 축제가 왜 연계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간단히 전달하고자 한다.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의 핵심 '의궤'와 '기록'

'수원화성문화제' 올해로 58회를 맞이하는 만큼 인지도도 높고, 규모 면에서도 손꼽히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축제다. 수원화성문화제는 그 명칭에 드러나듯 대규모 문화역사지원인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그간 수원화성과 정조대왕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고 되새기고자 노력해왔고, 시민의 삶의 터전인 수원화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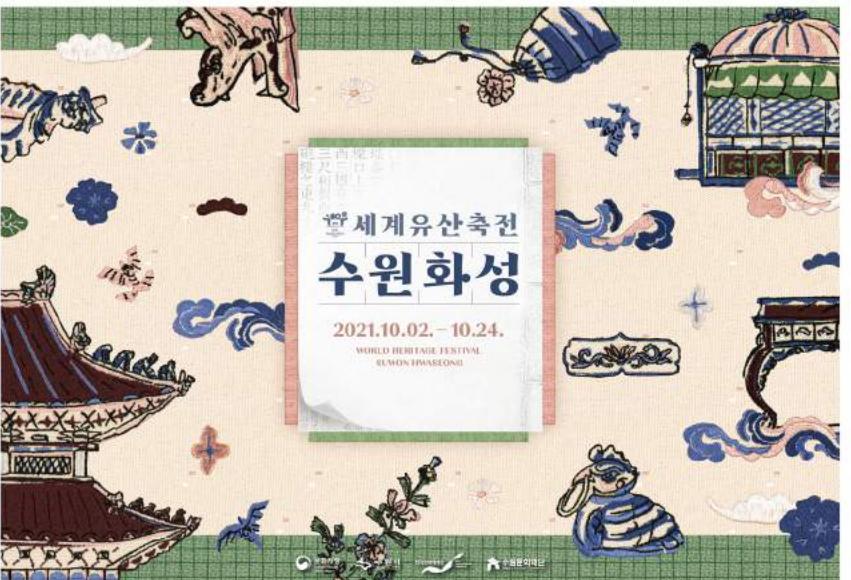
이렇듯 그동안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수원화성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고자 했다면, 이번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에서는 수원화성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화성이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배경, 세계인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도 독보적인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살피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지향하는 바다. 즉,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기존의 수원화성문화제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보다 아카데믹한 측면에서, 객관적인 역사기록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수원화성에 깃든 숨은 의미들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에서는 '의궤'라는 역사적 기록을 조명한다. 의궤는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수원화성이 원형과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원천이다. 조선 후기의 성과건축부터 왕실행사와 의식주, 문화예술까지 폭넓고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이 의궤를 통해 우리는 21세기에 200년보다 더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보고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역사적 기록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시도

앞서 밀했듯이 이번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원화성과 그 역사에 관한 기록, 바로 '의궤'다. 수원화성과 관련된 의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원화성 축성에 관한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정조대왕의 화성행차와 그 어머니 혜경궁 흥씨의 회갑연에 관한 기록 한 '원행을묘정리의궤'가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본 정리의궤' 있는데, 위의 두 가지 의궤를 한글로 옮겨 적고 삽화에 채색해 더욱 보기 쉽도록 정리한 편집본이다.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은 수원화성과 그 역사적 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와 함께 의궤 속 이야기 나눠보는 토크콘서트와 의궤 속 그림을 디지털로 표현한 미디어월 전시 등의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축전의 주제를 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전 콘텐츠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본다.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포스터



* 해당 축제나 행사의 기간,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제의 메인 이미지인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포스터는 의궤 속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기록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전에 수원화성문화제 포스터에서는 축제의 근간인 수원화성, 정조대왕, 그리고 시민을 중심으로 한 수원화성 건축물의 이름다움, 효와 애민사상 등 정신적 가치, 축제의 즐거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해 왔지만, 의궤 기록 속 이미지를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첫 시도였다. 이런 시도는 이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이 어떻게 다른지, 문화제와 구별되는 축전의 특성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포스터는 의궤에 묘사된 건축물, 기물, 문양 등을 오브제로 삼았다. 거기에 덧붙여서 선별된 오브제들을 그려내는 방식에도 의미를 담고자 했고, 그렇게 선택된 작업 방식이 바로 '자수'였다. 자수는 오랜 예술의 형태인 동시에 기록의 한 방식이었다. 수원화성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을 자수라는 유구한 예술로 재현하고 다시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으며, 기계자수를 활용해 작업하는 고주연 작가와 만나 기획한 대로 이번 포스터를 작업할 수 있었다.

시행착오 끝에 만난 색다른 결과물

이렇게 의궤 속 기록을 재구성하며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는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¹⁾들도 있었다. 그중 의궤 삽화 속 물건의 명칭과 용도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의궤 속에는 여러 기물에 관한 명칭이 한자로 쓰여 있고, 그 용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연회에서 쓰이는 물건인 경우, 연회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나오고 그 뒤에 해당 연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이름과 함께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이는 그대로인 물건일 때도 있지만, 앞뒤 그림을 통해 추측하고 관련 연구자료를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실 처음에는 디지털 번역기를 통해서 한자 번역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난처했다. 알고 보니, 옛 기록인 터라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어 이미지 번역에서는 거꾸로 글자를 번역했던 것이었다. 그 실제 예로 [그림2]의 '삼한'이라 적힌 물건은 마치 색동 복주마니처럼 생겼는데, 처음에는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의궤를 분석한 연구자료를 찾아보니 그 이름이 사실은 한삼으로, 춤출 때 팔에 끼우는 긴 소매였다. 또한 [그림3]의 준화상은 다과나 술을 올리는 주안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회 때 꽃을 꽂는 화병을 올려놓는 상이었다. 이렇듯 의궤 속 기물의 정체를 알 아내는 것도 이번 포스터 작업의 일환이었다.

1) 포스터에 관한 이야기는 인민화학 블로그 내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포스터 소개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궤 속 기물들에 얹힌 에피소드



의궤 등 기록 이야기 콘텐츠의 다양화

2021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기간 2021.10.02. (토) ~ 2021.10.24. (일)
시간 11:00 ~ 21:00
장소 수원화성 일원 및 온라인
요금 무료 및 유료

또한 자수로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방식도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이번 포스터는 밑그림을 그린 후에 그 위에 자수작업을 진행하고 스캔하는 방식으로 완성되는데, 이 스캔 작업물에서 이슈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포스터를 A1 크기로 작업하고 가장 좋은 화질의 스캐너로 스캔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화소가 너무 곱고 화질이 좋아서 자수 특유의 질감이 잘 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한 담 한 담이 너무 고와서 이미지상으로는 자수처럼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로그적인 자수 작업물을 디지털로 변환해야 하다 보니 특유의 질감을 잘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를 위해서는 자수 실물 이미지의 크기와 스캐너 화소의 선택이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결국, 작업물 크기를 줄여 다시 자수를 놓고 중간 화소의 스캐너로 재작업을 한 끝에, 지금같이 보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역사적 기록을 기반으로 이번 포스터를 구성하는 일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작업이었다. 의궤 속 건축물, 문양, 기물 이미지를 하나하나 재구성하고 자수로 표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인, 이번 포스터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유산 수원화성에 있어 의궤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지만, 기록유산으로서 의궤의 존재가 아직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을 앞두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의궤 및 역사기록 시리즈 콘텐츠를 기획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채널에 올리고 있다. 수원화성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재 모습과 의궤 속 원형의 모습을 비교하는 <의궤에 반하다>를 비롯해 포스터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이 어디서 발췌되었는지, 또 어떤 물건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단편 콘텐츠 <수원화성 의궤이야기>와 장편 콘텐츠 <포스터 속 오브제 살펴보기>, 1800년대 간행된 '일득록'을 기반으로 한 정조대왕의 어록을 소개하는 <정조를 읽다> 등이 이러한 시리즈 콘텐츠들이다. 가끔은 고루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역사기록을 짧은 이야기 콘텐츠를 통해 가볍게 접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원화성 의궤와 기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원화성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이토록 다채로운 면모를 가진 세계유산 수원화성이 우리 곁에 있다는 뿌듯한 마음을 많은 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요람의 기억_아이모먼트

2021 수원연극축제, 숲 속의 파티 선선한 가을에 찾아갑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수확이 끝난 자리에 다채로운 공연이 채워진다. 2021 수원연극축제가 올해는 10월, 수원탑동시민농장(옛 서울농대 실험목장)에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쉬고, 올해에는 일정을 2번이나 연기했던 수원연극축제가 다시 달린다.

※ 해당 축제나 행사의 기간, 프로그램 등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Chapter. 1

변화된 일상, 다시 시작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 기다렸던 '2021 수원연극축제'를 다시 시작한다. 1996년 수원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 민간에서 시작된 수원연극축제는 2018년 '자연친화적 예술축제 - 숲속의 파티'라는 부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성국제연극제'에서 '수원연극축제'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변모되어왔지만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의 공존, 공연예술의 발전' 만큼은 흔들림 없이 고수해왔다. 2021 수원연극축제 역시 변화된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함께'하는 축제의 본질을 향해 나아간다. 보다 많은 사람이 문화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수원연극축제가 오는 10월 '숲속의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Writer 김영미 수원연극축제 홍보팀 담당자



¹거리끼다_우주마인드프로젝트

²자장가의 기억_보이스싸이터 몽MOM 소리

³디크니스풀비_모던레이블

⁴자살감대_김예은

Chapter. 2

10월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올해는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축제를 진행한다. 2019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약 21만 관객을 불러 모은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변화한다. 안전하게 관객과 만나고자 수원탑동시민농장을 축제 장소로 선정했다. '자연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축제'의 취지는 동일하다. 다만 사전예약을 통해 관객의 입장장을 제한한다. 철저한 인원통제와 방역으로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만큼은 코로나19를 잊고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축제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봄을 만끽했다면, 올해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경험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3

2021 수원연극축제 <숲속의 파티> 프로그램

한 해를 쉬고 다시 출발하는 수원연극축제 프로그램 구성이 조금 새롭다. 코로나19는 수원연극축제 운영뿐 아니라 공연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주었다. 국내/해외 공연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예년과 다르게 2021 수원연극축제는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 공연'으로 가득 채웠다. 기존보다 더 다양한 국내 거리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불꽃극, 서커스, 현대무용, 인형극, 보이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드넓은 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공연은 실내 공연과는 조금 다르니, 2021 수원연극축제에서 펼쳐질 공연을 기대해보자.

공연명	단체명	장르
가리앉거나, 헤엄치거나	공연창작집단 사람	현대서커스
거리끼다	우주마인드프로젝트	거리극(관객참여형)
다크니스 품바	모던테이블	현대무용
돌연한 출발	일장일딴컴퍼니	인형극
박스토리	은세계 씨어터컴퍼니	연극
봄날	극단 도토리	거리 인형극
불의 정원	예술불꽃 화랑	불꽃극
비상(한국버전)	아도크 프로젝트 외	거리극(이동형 공연)
셀프 마사지사	비주얼씨어터 꽃	공동체 퍼포먼스
수직	포스	서커스
실험, 라이카, 토끼 그리고 랜트(가제)	바람컴퍼니	설치, 극
나는 그가 무겁다	윤정연 개인전	거리극
요람의 기억	아이모멘트	오브제 기반 거리극
자장가의 기억	보이스씨어터 몸MOM소리	보이스퍼포먼스
적응	231쇼	서커스
진격의 나무(episode 1)	극단 우체통	낸버벌 환경 판타지극
크락션	금설복합예술소	인형극, 거리극
태움2021	봉엔줄	컨템파러리 서커스
37.5°C	프로젝트 잠상	융복합 전시



2021 수원연극축제, 숲 속의 파티
일시 2021.10.29(금)~31(일)
장소 수원탑동시민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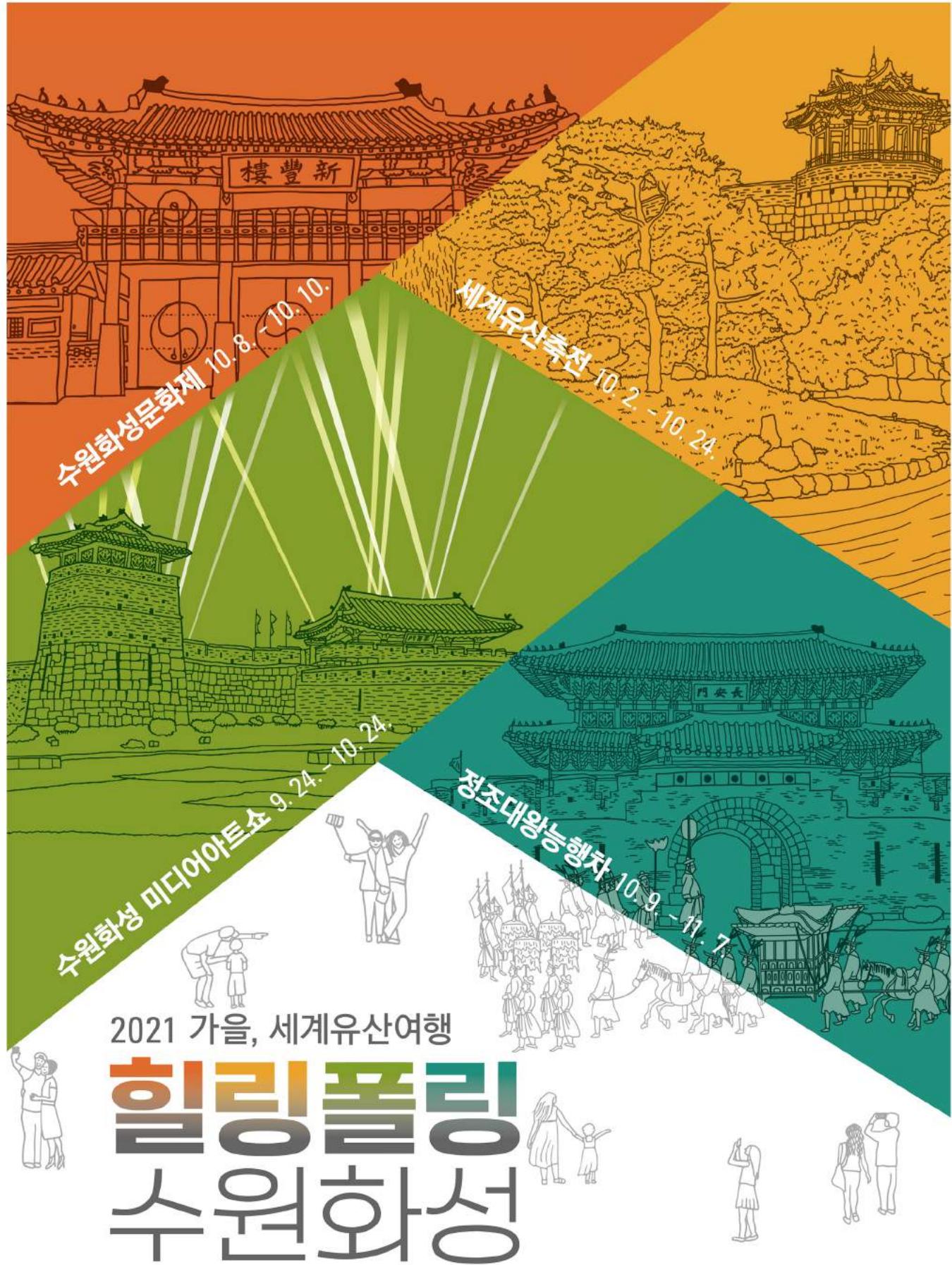
Chapter.4

곳곳에서 펼쳐지는 수원연극주간

한편 9월에는 수원연극축제에 앞서 '수원연극주간'을 진행했다. 9개의 지역 극단들과 함께한 수원연극축제 사전 프로그램을 수원 곳곳에서 공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의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했다. 더불어 지역 극단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으로 채워져 시민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몇몇 공연들은 각 극단의 유튜브를 통해 재관람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2021 수원연극축제는 미디어 프로젝트, 체험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하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수원문화재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하니 온·오프라인에서 다각도로 수원연극축제를 즐겨보자. 가을의 끝에서 수원연극축제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



수원시가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수원문화재단은 지난 3월 문화도시센터를 신설해 시민 주체의 성장지원, 다양한 거점공간 발굴, 도시브랜드 강화 등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에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도시 조례 개정, 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문화도시센터의 역할

#01

문화도시 사업은 가시적인 대규모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행사 사업이 아닌, 시민 스스로 문화도시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도시의 문화가 되는 과정형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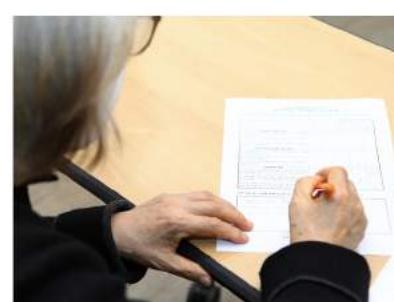
2011년 선도적으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2018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중물 사업으로 문화 특화지역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렇게 촉적된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센터는 '문화×도시×시민'을 가로지르는 매개자, 연결자, 촉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수원이 가진 시민력, 문화력, 도시력을 기반으로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센터가
하는 일(주요사업)

#02

문화도시 수원은 2020년 12월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문화도시센터 조직을 신설했으며,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의 비전 아래 네 가지의 핵심주제를 재설정하고 시민 주체의 성장지원, 거점공간 발굴, 도시브랜드 강화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가치

[인문실천을 통한 시민문화력 강화](#)

도시문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문화적 실험이 가능한 문화 거버넌스 주체의 성장지원

주요사업

['수원은 학교'](#)

문화도시 거버넌스의 핵심주체인 시민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며, 일상에서의 배움과 실천을 통해 구성원 간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원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매개로 세대별, 주제별, 계층별 맞춤 양성사업을 통해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고, 문화 인재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04

센터 사람들 소개

마을가치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시민의 문화적 삶이 일상에서 실현되고, 연대를 통해 지역 문화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시민과 관계에 기반한 공간 매개 사업 추진

주요사업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 및 운영'
생활권 내 거점 공간 운영을 통한 활동의 터전 및 지속성의 근간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 스스로 일상과 도시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활동 거점인 '문화도시 동행공간' 1기에 20개소가 지정되었다.
또한, '생활문화공간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8개의 지역 문화공간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문화도시 수원에 바란다(시민리더 30명)

수원형 인문
·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작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수원이 되길 바랍니다.
· 마을 내에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인문도시로서 수원이 지금처럼 다양한 공연, 전시를 마련해줌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역가치
지역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문화 선순환 구조
역사자원 및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콘텐츠화하여 문화생산-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작동

주요사업
'인문도시 아카이브'
지속가능한 기록생태계 형성을 위한 핵심인력양성과정<도시기록단>에서는 아카이브를 기획하며, 기록을 위한 인터뷰 방법과 글쓰기, 사진 촬영법을 배운다.
사라져가는 도시의 기록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을 자원화 및 자산화해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생태가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의 자연생태계를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 문화 형성

주요사업
'실험목장 AGIT 월간공간실험'
옛 서울 농생대 부속실험목장의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실험목장 AGIT'에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실험을 진행한다.
공간 기반의 활동 모임인 '공간실험단'이 기획한 문화실험을 통해 지역 의제의 문화적 해결을 도모하며 향후 생태거점공간의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올해는 생태문화를 경험하고 공간을 실험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 8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03

지속가능성
· 다양한 부문에 도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비탕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수원에서 많은 시민이 융기종기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한 색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 진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다양성
· 다문화 및 저소득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지속발전 가능한 시니어 문화가 다양하게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지쳐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 접근 및 비대면 방식의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옥 센터장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엄청난 에너지 블랙홀에 빨려든 느낌이랄까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뛰어야 보배라는데 수원 곳곳의 구슬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멋진 작품으로 엮어가겠습니다.

박경홍 시민문화팀장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도시 속 심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것을 느낍니다.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하는 센터 직원들과 약 4년간 함께하고 응원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통해 수원이 법정문화도시로 꼭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다룡 차장

센타가 생긴 후 5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힘난한 과정들이 많이 남았지만, 문화도시 수원의 한 구성원인 저의 몸과 건강도 굽어살피면서 남은 4개월을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양태인 정책기획팀장

문화도시 준비과정에 생각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센터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까지 온 듯합니다.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길 기원하며 센터직원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천재승 주임

문화도시 거점공간 사업을 담당하면서 그간 몰랐던 동네 안의 김초 같은 공간들을 하나둘씩 만나고 있습니다. 저만 알기 아까운 이 공간들을 더 많은 수원 시민분들께서 접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예지 대리

일상에 묻혀 이상을 잊고 살았는데 문화도시센터에 근무하며 인문적 삶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의미 있는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혜미 주임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는 과정의 한가운데에서 힘들지 만 재미도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많은 분이 저처럼 다양한 재미와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황지아 주임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한 지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분과 항상 나서서 도와주시는 씨티메이커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문화도시 수원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정희호 주임

문화도시센터에 들어온 지 아직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지만 남은 4개월 동안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 수원이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하늘 주임

처음이라 그레 머칠 뒤엔 관찰이 저그 생각만으로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문화도시와 함께한 지). 문화도시 사업은 아직도 어렵지만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가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힘써보겠습니다. 우리 존재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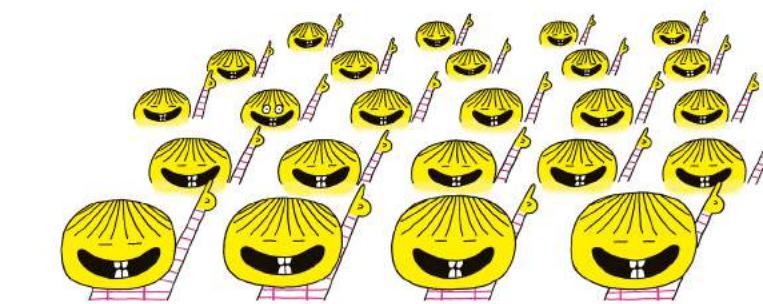
Writer 박미진
Photo 김성재

SEO HYUN

서현 작가

유머 찾아 머릿속을 날아다니는 여행자

친구를 기다리던 어느 날 서점에서 무심결에 뽑아 펼친 그림책 한 권. 글이 없는 책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당황스러움도 잠시, 상상으로 가득한 묘한 매력이 시선을 끌어당긴다. 가랑비에 웃 젖듯 섬세하게 묘사된 그림 속으로 점점 스며들었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그림책은 서현에게 또 다른 새로운 책 읽는 즐거움을 가져다줬다. 어릴 적부터 줄곧 만화가를 꿈꿔온 그는 그날 이후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했다.



『간질간질』의 한 장면, 사계절, 2017.

언제 어디서든 펼치는 상상의 세계

어린 서현은 만화를 꿈꿨다. 꼬마였을 때부터 만화를 즐겨봤고 캐릭터를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만화 속 장난감과 피규어를 모았다. 이따금 점토로 만화 주인공을 빚어도 보는 등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만화가를 희망하던 서현은 지금 그림책 작가다. 어떤 계기였을까?

“서점에서 데이비드 워즈너의 <이상한 화요일>을 우연히 보고 난 후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뒤바뀌었어요. 그림만으로도 독자들에게 흥미로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작가는 마치 영상을 재생하듯 섬세한 장면묘사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어요. 독자는 그림만 보고 이야기를 읽어 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서현 작가는 그림책의 매력에 풍덩 빠졌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편견이 산산 조각났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마음을 들썩였다. 새로운 세계를 만난 서현 작가는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다른 장르보다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고 남녀노소 접근하기 편한 그림책의 매력이 그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책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보고 싶은 세계를 펼쳐서 감상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버스락거리며 종이를 넘기는 행위와 그 물성까지 포함된 세계죠. 그중 그림책은 글 없이 그림으로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그림책에 담긴 그림언어를 통해 책의 정서를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책은 정말 멋진 미술작품이기도 해요.”

그림책에 대한 작가의 견해는 작품 속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최근 발간한 <호라이>에 들어 있는 특별부록 하단에 ‘그림책은 지성인의 필독서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림책은 성인이 읽기에도 좋습니다. 살면서 잊고 있던 정서나 감각을 깨워주는 부분이 많은 책

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나 마음이 딱딱해진다면 그림책을 읽어보세요.”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서현 작가는 눈물이 많았던 어릴 적 경험을 녹여낸 <눈물바다>를 시작으로 총 5권의 창작 그림책 노력이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재미를 발견하고 싶다는 작가의 마음이기도 하다. 책을 만들면서 지키는 철칙도 분명하다. 본인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작업의 과정과 이야기가 작가 자신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밌어야 책을 보는 독자들도 공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 책을 읽고 재미있었다고 말해주시는 독자분들을 보면 행복해요. 그만큼 행복한 말이 있을까요?”

속에 떠다니는 유머나 재미 요소들을 쑥쑥 골라내며 아이디어를 얻는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재

있는 일을 하기도 한다.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평노력이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재미를 발견하고 싶다는 작가의 마음이기도 하다. 책을 만들면서 지키는 철칙도 분명하다. 본인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작업의 과정과 이야기가 작가 자신에게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밌어야 책을 보는 독자들도 공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 책을 읽고 재미있었다고 말해주시는 독자분들을 보면 행복해요. 그만큼 행복한 말이 있을까요?”

웃음이 나고 행복한 시간 되길

서현 작가는 노란색을 즐겨 쓴다. 그가 펴낸 책 표지들을 보면 작가가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에 의해서 쓴 색이라며 방긋 웃다가도 이내 색 쓰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전했다.

“만화에서 반짝거리는 장면을 표현할 때 노란색이 많이 쓰이는 것을 아시나요? 빛이 나거나 별, 황금을 표현할 때도 노란색을 많이 쓰죠. 노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힘이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리는 캐릭터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쓰기 시작했죠.”

지난 7월에는 동글동글 귀엽고 노란 계란프라이를 소재로 한 <호라이>와 <호라이 호라이>를 출간했다. 본인이 펴낸 세 권의 책에서 우연히 계란프라이가 등장한 것을 발견한 후 계란프라이를 조연의 역할이 아닌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늘 누군가에게 먹히는 존재인 계란프라이를 새롭게 바라보고 싶었다. 계란프赖는 부르기 쉽고 경쾌한 느낌의 ‘호라이’가 됐다. 일에서 태어난 호라이는 밥 위에 있었다가 머리 위, 빨랫줄, 박물관 등 독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를 넘나든다. 작가는 어리로 틀지 모르는 호라이를 따라갈 뿐이다.

과감한 상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며 통통 튀는 전개를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책이 불러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저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웃음이 나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을 느끼셨다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들은 재미난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이 농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말 한마디도 작품활동에 하는 데 큰



‘간질간질’ 표지, 사계절, 2017.

그림책은 지성인의 필독서

서현 작가는 차기작으로 요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상상 속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그는 <호라이> 출간 후 다음 작품을 구상 중이다. 틈틈이 그림책 작가들과 전래동화를 주제로 한 독립출판물도 제작한다. 수원 토박이인 서현 작가는 지역에서 전시 등 문화행사도 열고 있다.

“작년에는 슬기샘어린이도서관에서 그림책 원화 전을 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기간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재미있게 발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총 다섯 권의 책을 낸 서현 작가는 <달을 마셨어요>, <일수의 탄생>, <책이 사라진 날> 등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도 그림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기분이 든다는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민화가 서현으로도 언제든 찾이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림책을 어린이만 보는 책으로 구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장르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은 모든 나이를 아우르는 힘이 있거든요. 대체로 글과 그림이 함께 하지만 그림의 속삭임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상징이 가득한 마체이기도 해요. 독자분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많을 겁니다.”



서현 PROFILE

2009. 11. <눈물바다> 발간 - 사계절출판사

2012. 06. <커졌다!> 발간 - 사계절출판사

2014. 그림책도시 원주, 서현 작가와 놀다 '커졌다! 그림책' 展

2015. 제주도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 그림책 작가 서현 전시 '그림책 바다-놀이라: 아이들' 展

2016. 부산 어린이책전치 - 놀고 자빠진 책 '서현 그림책 원화 展'

2017. 04. <간질간질> 발간 - 사계절출판사

2017.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어린이책놀이터 너니들이 '오예! 그림책' 서현 展

2017. 제58회 한국출판문화상 수상

2018. 대전 계룡문고 '서현 작가의 간지러운 그림책' 展

2019. 피스북스 - 평화를 말하다: 서현 그림책 원화작은 전시회 '시원하다, 후아!' 展

2020. 11. 수원 슬기샘어린이도서관 마음이 씨악! 그림책 원회 展

2021. MOKA 현대아린이책미술관 '#보파리바캉스' 展

2021. 07. <호라이>, <호라이 호라이> 발간 - 사계절출판사

PARK CHANGUK

'도시충:동 예술충:동' 예술 감독 박찬국 작가

수원시민들의
일상에 공공예술로
낯선 질문을 던지다

'예술'이라는 단어에는 무언가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느덧 예술은 흔하게 접하는 건물이나 공원에도 자연스럽게 걸려 있어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공공예술은 이렇듯 너무나 '공'적인 영역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적인 이야기를 던져 놓는다. 그렇게 친숙한 일상에 낯선 시선을 던지며, 고독한 질문을 편안한 통속 위에 얹어놓으며, 예술과 일상의 경계선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

즐거운 수다 2

Writer 정찬영
Photo 주호상



Q.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공예술실험 교동예술실험단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충·동 예술충·동' 사업에도 예술감독으로 참여하셨는데, 도시충동 사업이 갖는 특색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시 충동·예술충동은 수원시가 시도하는 공공예술사업입니다. 실험적이기도 하고 수원의 도시 전반에 관한 탐색 과정의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첫 시도이고 기간도 짧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공공미술에서는 ‘현장성, 컨텍스트(장소와 사건과 관계의 맥락),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제약 때문에 작가들이 각자의 관심에 따라 수원 곳곳에서 작업하고 그 과정이나 맥락을 웹페이지에 올립니다. 또 교동 곳곳의 가게 안 어딘가에 기생해 전시합니다. 교동 공간과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이지요. 전시가 예인이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재미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Q. 현재 어떤 작품들을 준비 중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가들이 아직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수원시를 돌아다니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의 비행기 소리와 도시에서 나는 소리들, 빈 곳, 늘 존재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던 식물들, 사라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기후와 같이 예측보다 빠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슈들이 생활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거기서 발생하는 격차나 소외나 갈등도 관심사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가들에 의해 드러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번에 작가들과는 ‘흥미로운 전달자’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Q. 프로젝트의 이름에 왜 ‘가 불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선 충동이라는 글씨 사이에 쉼표를 넣어서 ‘도시충·예술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요즘 ‘충’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잖아요. 뭔가에 끌려진 사람, 너무 깊이 끌려진 사람을 뜻한다고 느꼈고, 그게 도시와 예술에 끌려진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도 쉼표도 아닌 것이 글자 사이에서 한숨을 쉬어가는 느낌도 들 수 있어 색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에서는 움직인다는 의미가 있어서 도시와 예술 사이에서 움직이는 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Q. 수원시가 문화 도시로서 가지는 특색이나 강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특별하고 재미난 도시죠. 요즘에는 신도시나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은 곳도 주목받고 있죠. 이주민들도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요. 생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도시이기도 하죠. 농촌의 요소도 꽤 남아있는데 이질적 요소들 안에서 다양성을 포착한다면 큰 강점이 될 것 같아요. 편리한 도시, 서비스 중심의 도시, 보여주기에 급한 도시를 너무 추구하면 특색을 잃고 문화도시에서 멀어지겠죠. 이 다양성을 서로 보살

피며 천천히 가면 수원다운 것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저는 교동이나 지동, 서수원의 옛 동네들 안에 수원다운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Q. 수원시 내에서 소외된 공간에 주목하셨군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공간을 교동으로 선택하셨나요?

이번 사업의 주요 무대가 꼭 교동은 아닙니다. 대부분 작가가 교동이 아닌 다른 장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은 개인작품 제작과 다르게 작업 과정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합니다. 교동의 전시는 특별히 기록된 기록형식(도큐먼트)입니다. 교동의 전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는 좀 다른데 이번에는 거기서 전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웃음). 전시 핑계로 사람도 만나고 거리도 만나고 역사도 만나는 겁니다. 부러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교동과 새로운 역사를 쌓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전시공간 교섭 때문에 교동의 가게 분들과 만났는데 너무 재밌어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조심스러워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에너지가 새로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재미난 접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Q. 공공예술 사업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예술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며 작가님이 공공예술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완전히 관공서가 주관하는 국가 예술 사업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색깔보다는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요즘에는 뉴장르퍼블릭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장르가 생길 정도로 공공예술의 범위가 확장되었죠. 실제로 사람들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동시에 존재해요. 원전히 나 자신만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사회화된 부분이 있고, 아무리 공적인 사업으로 작품을 만들어도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되죠. 저는 이 사이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공공예술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Q. 도시에 공공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는 정말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또 화합과 긴장 등의 색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을 공공예술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술이 가지는 낯선 감각을 도시인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예술이 도시에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Q. 이번 프로젝트 외에 작가님은 어떤 공공예술 작품을 만들어 오셨나요?

주로 우리 삶의 일부지만, 외면받는 장소를 저의 예술적인 표현의 공간으로 삼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폐교를 이용해 미술 교육을 한다거나(밀머리 미술학교), 기존 마을과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서로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드러내며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풀어가기도 했죠(‘논아트 밭 아트’). 원래 동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농사짓던 눈에 오리를 키우면서 뜻밖의 체험, 관찰, 퍼포먼스, 기록, 심지어 무슨 관광 명소처럼 즐기게 만들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동물, 식물, 낡고 오래된 골목, 너무나



박찬국 작가의 작업 공간



박 찬 국 PROFILE

학력

- 2021 도시충·동 예술충·동 예술감독
- 2014~2021 drp (동대문 옥상낙원) 운영
- 2018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kook+)작가
- 2018 YORK UNIV(YCAR) Summer Institute & public talks (Toronto, CANADA)
- 2017 문화비축기지(서울) 개인과정 예술감독
- 2014~2015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미술 설치프로젝트 예술감독(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 2016 Made in seoul (Centre art contemporain Meymac, France)
- 2016 전봇대집ASM(Art Spirit Machine) 디렉터(서울 혁신파크)
- 2015 서울 혁신파크 외부공간 (Play, InnoPark 총괄 디렉터, 서울시)
- 2011~2012 논아트 밭 아트 (nonArt but Art) 프로젝트 (남양주시+경기문화재단)
- 2009~2011 서울시 아트팩토리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 2010 일본 요코하마 BankART Studio 초청 레지던시 (Yokohama, JP)
- 2002~2010 밀머리 미술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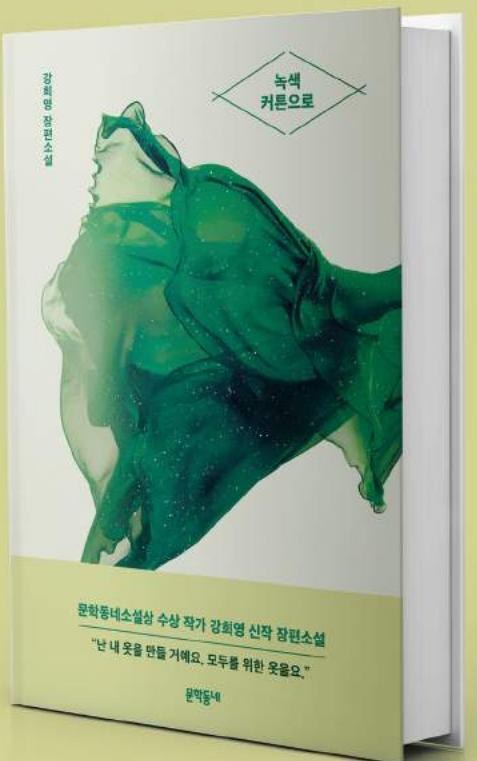
수상

-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프로젝트 부문, DRP)
- 2004 광주 비엔날레 ‘현장’ 수상(광주)

나는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 따윈

없
다
고

생각해



강희영 신작 장편소설『녹색 커튼으로』

독특한 화법과 진지한 탐구 의식, 탄탄한 구성으로 “어디를 봐도 흡잡을 구석이 없는 뛰어난 작품(소설가 박민정)”, “에너지와 기운이 강력한 소설(소설가 정용준)”이라는 친사와 함께 제25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린 강희영의 두 번째 장편소설『녹색 커튼으로』가 출간됐다.

온 감각이 만개하는, 초록빛이 무성한 여름의 두 사람

패션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손꼽히는 유럽 패션 위크, 덴마크의 어느 골목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포토그래퍼를 꿈꾸는 ‘차연’이 모델 ‘다민’과 마주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낯선 이국에서 만난 또래의 두 여성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며 자연스레 이끌린다. 들은 패션쇼 애프터 파티에서 패션계 사람들과 섞이고, 아릿한 술기운으로 밤거리를 거닐고, 방파제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빵집에서 버린 데니시 롤과 호밀빵을 나눠 먹는다. 젊음이 가져다주는 무모하고도 뜬뜬 흰회를 만끽하는 다민과 차연의 모습에서는 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설렘과 웃음, 아찔함, 애틋함이 초록빛 이파리처럼 반짝인다.

다민의 소개로 유명 패션지 에디터에게 자신을 알리고 그의 추천서를 얻은 차연은 귀국한 뒤로 패션 잡지에 사진을 실으며 커리어를 쌓아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층 성장한 차연과 다민은 다음 해 여름 파리에서 재회하며, 함께 뮤리공원을 산책하고 이브 생로랑의 회고전이 열리는 푸티 팔레를 찾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프탈렌 냄새 속에서 어색하게 손목이 뒤틀린 동일한 체형의 백색 여성형 마네킹들과 이제는 클리셰처럼 보이는 옷들, 그리고 살 수 없는 그 옷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뿐이다. 어쩌면 그때 차연은 다민이 모델 생활에 피로를 느끼고 있음을, 순간의 유행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은 패션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얼마 후 다민은 모델 생활에서 은퇴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차연은 그런 다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다민의 부탁으로 패션쇼 준비를 돋는다. 예쁜 걸 모아놓고 그걸 망쳐보겠다는, 그래서 유행을 끝내고 자신과 모두를 위한 옷을 만들겠다는 다민의 무모한 기획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한 채로 패션쇼보다는 연극적인 퍼포먼스에 가까웠던 그 날의 쇼 이후 다민은 차연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로 패션계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민의 안부보다 다민이 만든 옷의 행방에 관심을 기울 뿐, 오직 차연만 다민이 남긴 메시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다민이 사라진 자리에서 다민을 기억하며, 패션이란, 예술이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비로소 다시 생각한다. 다민이 남긴 것을 손에 쥐고, 다민의 뒤를 잇기로 결심한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닌 유행 그 자체, 하공을 떠다니는 녹색 커튼

강희영 작가의 첫 작품『최단경로』가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는 삶의 돌발성과 그로 인한 상실의 슬픔을 인상적으로 그려냈다면, 두 번째 작품『녹색 커튼으로』에서 작가는 패션과 사진을 소재로 삼아 빠르게 부상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유행의 시대에 진정한 차이란, 그것을 표현하는 예술이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아름다움과 예술의 문제에 접근하는 참신한 시각과 눈이 부실 만큼 선명한 감각으로 다가오는 섬세한 문장이 어우러져 새로운 소설 세계를 만나는 반기운 기쁨을 깨닫게 한다.

『녹색 커튼으로』의 대부분은 지난해 여름에 썼다고 한다. 강희영 작가는 2020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연달아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초고를 완성했다. 반은 그곳에서, 나머지 반은 한국에서 쓴 것이다. 그는 작금의 팬데믹으로 인해 암스테르담에서의 유학 생활을 중지했고, 그곳에 애써 꾸린 공간을 헐면서 이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다. 당시 그런 아이러니가 무너지는 가운데 세워지는, 어떤 자연의 풍경을 연상시켰던 것도 같았다고 말한다. 당시 그에게 청명한 하늘이나 짙은 녹음 같은 친밀한 풍경은, 정말이지 창틀로 표구한 그림이나 다른 바 없었다고 창밖이 그런 경치로 채워져 있었던 것은 분명 큰 행운이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속이 상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어릴 적 쇼윈도 앞에서 느꼈던 기분이 자주 되올라왔다고 한다. 『녹색 커튼으로』가 차연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짚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쉴 새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장막으로 가려진 무대 뒤에서 영원을 꿈꾸는 일, 젊음과 낭만,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세계의 허위를 찢고 어떤 형식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生生한 감각을 그려 보이는 일은 그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녹색 커튼으로』는 자신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된 소설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이야깃 것이다. ☞

강희영 작가

1986년 수원 출생. 서울과 암스테르담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다. 2019년 장편소설『최단경로』로 제25회 문학동네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들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열린 공간

수원 학습동지 시설

수원시에는 카페, 공방 등에서 공간을 기부해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학습동지'로 동네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 강좌, 전시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학습하고 배움을 나누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워 나간다.

* 운영 시간 등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가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Suwon Learning
Nest

더불어 나누는
소통 공간
카페나루(NARU)

학습동지 운영

2021년 5월 강은주 展,
2020년 손뜨개 학습, 별꽃 캘리 등 진행

가게 지기 추천

- ¹보은에서 재배한 무설탕 대추차, 견과류 가득
수제 쌍화차
- ²자가제면(직접 뽑는) 수제 생면 파스타
- ³직접 재배한 무농약 블루베리 패



Suwon Learning
Nest

순간순간이
행복한 자리
나모카페(나의모든순간)

학습동지 운영

정리수납 강좌, 주부 상담 강좌, 토론 모임 등 진행

가게 지기 추천

- ¹블루아몬드라떼 5,000원
- ²수제 레몬차-자몽차 3,800~4,000원
- ³크로크무슈 4,500원



화서동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 보면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에 유럽풍의 흰 벽돌 건물이 눈에 띈다. 동네 가운데 처음 생겼을 때는 생소하고 낯선 분위기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느덧 자리 잡은 지 3년이 넘었다는 나모카페. 카페의 처음 시작은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운영했는데, 현재는 어머니가 이어받아 운영한다. 학습동지가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수원시에 저희 가게를 추천해 주셨고, 2019년 가을 무렵부터 학습동지 시설로 지정됐어요” 당시 학습동지 시설을 막 추진할 때라 학습동지 발대식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인터뷰 등 이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많았다.

화서동에서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한 카페 지기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열악하게 자리 잡은 이곳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코로나 시기에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다큐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며 토론하셨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라며 가게의 상호처럼 나의 모든 순간 중에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길 바라며 이곳에 터를 잡았다. 지금은 코로나로 학습동지 운영을 잠시 중단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2층을 게스트하우스 겸 힐링 공간으로 연결해보고 싶다고 한다. 하물어져 가는 주택을 직접 개조해 이 공간을 꾸몄기에 이 동네에 더 애정이 간다는 그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웃음 짓게 하고 싶어 원두 모양의 얼음을 만들어 내놓으며, 주민들과 마주하고 있다. 이곳이 그의 따스한 마음처럼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마을의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A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25번길 78-1, 1층
O 월~금요일 10:30~22:00 / 토~일요일 11:00~22:00
T 010-3164-6393



특별하지만
편안한 쉼터
매출자

수원 팔경 중 으뜸이라 하는 방화수류정과 화홍문 거리에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한옥들이 드문드문 들어섰다. 그중 고즈넉한 분위기에 나무 향기 맡으며 머무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되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매출재를 찾았다. 아담한 미당과 2층으로 된 매출재는 한옥답게 각 방의 이름도 특이하다. 1층의 화홍관창, 복지상련, 용지대월과 2층의 남제장류, 광교적설, 서호낙조의 6개 방과 공동거실로 꾸며져 있다.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데 긴 시간 열진 않지만, 향긋한 꽃차와 건강한 전통차, 대추칩과 건빵강정 등 커피를 제외한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

그중 조용하고 편안한 매출재의 학습동지인 '사랑방'은 그 분위기에 걸맞게 독서 모임과 동호회 모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는 워크숍 및 유튜브 촬영, 작품 전시 등 복합적인 장소로 이용된다. "매출은 고구려 시대 수원의 옛 이름이며 '물이 많은 고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자 2년 전부터 학습동지로 제공하게 됐죠." 하지만 가게 지기는 작년부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인원 제한으로 거의 운영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통문화관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우리나라 신랑과 프랑스 신부가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을 묵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오신 하객들이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한 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라고 다양한 분들이 찾아왔다며 특별한 기억을 떠올린다. 매출재 지기는 수원화성은 물론, 통닭거리, 전통시장, 팔달산 등 볼거리가 많은 이곳에서 소규모 전시나 음악회 장소로도 이용되길 바란다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학습동지 운영

독서 및 토론 모임과 동호회 모임,
워크숍 등 운영

가게 지기 추천

¹게스트하우스 1박 평일 55,000원~100,000원

²게스트하우스 1박 주말·휴일 전일

75,000원~120,000원

³메리골드꽃자 6,000원

수제 오미자차·생강차 7,000원

⁴A 팔달구 화서문로75번길 27, 1층
O 게스트하우스 예약제, 카페 일~토요일 12:00~19:00 / 월요일 휴무
T 031-8001-8008
S blog.naver.com/maeholjae

학습동지
시설 안내

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니모카페	팔달구 동말로25번길 78-1	010-9661-6393
2	갤러리카페 리원	팔달구 행궁로 49, 1층	070-7677-8259
3	다전1973	화서문로42번길 6	031-8031-5677
4	문예공간 갤러리카페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61, 1층	031-239-7274
5	커피내음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36, 1층	010-9737-1150
6	해세처럼	팔달구 정조로791번길 20	031-307-8873
7	아마이심신치유연구소	영통구 권선로 812, 2층	031-235-0223
8	이건희인두화창작소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15	010-4717-6405
9	커피하는 사람들	장안구 정조로 918	010-4122-3000
10	북카페 구르미	권선구 매송고색로721번길 26	010-8383-3300
11	카페 포레스트	영통구 매영로415번길 56-3	010-7445-5044
12	비티제이 카페	영통구 청명남로4번길 21-1	010-5052-3119
13	에버그린	팔달구 향교로 73	010-7311-0844
14	더 가든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55, 에일린의뜰 상가 101호	010-3944-4556
15	손놀이마을카페놀이터	영통구 매원로 13-1	010-5279-7725
16	소담소담	권선구 상탑로 90-3, 1층	031-294-9927
17	매출재	팔달구 화서문로75번길 27	010-2338-7033
18	작은도서관 책고집	팔달구 신풍로 74, 2층	010-5418-6558
19	행복한산책	권선구 금호로 61, 2층	010-9958-6879
20	데일리치킨카페	장안구 파장천로 56, 1층	010-4151-7639
21	매종드 커피	팔달구 매신로 131, 1층	010-4465-3545
22	베로니떼공예	영통구 영통로90번길 41, 102호	010-3241-9417
23	카페 스트리트54	영통구 삼성로 176-1	010-2765-5462
24	경서도창악회 화서지부	팔달구 덕영대로 939, 3층	010-7123-9556
25	유노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316-3	010-4059-0394
26	목공방 수리수리 디수리	팔달구 팔달로 28-2	010-4059-0394
27	몽글커피	영통구 권선로882번길 26-31	031-302-8846
28	꽃맘센터 협동조합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55, 행복주택실버타운 상가1	010-2432-1741
29	별나들이	팔달구 인계로 132, 209호(인계동)	010-9992-3819
30	선한이웃	영통구 매여울로 38, 1층 최죽상가	010-5092-2863
31	지오그래피	팔달구 화양로67번길 10, 207호(화서동)	010-8583-0908
32	카페 베님	팔달구 화서문로 47(장안동)	010-3050-7528
33	진육제 인성예다교육원	팔달구 화양로21번길 66(화서동)	-
34	커피하우스	장안구 금당로 58, 1층(조원동)	010-3959-3453
35	더 커피 비움	장안구 창춘로 76-2 (연무동)	010-7432-9300
36	커피마마	권선구 금곡로73번길 176	010-5273-8536
37	저스트콤마(JUST COMMA)	영통구 광교중앙로 250, 107-108-1호(하동)	010-9665-9289
38	가치가게	권선구 세권로 140, 해피하임 B01호	010-7227-8821
39	더데이지카페공방	영통구 중부대로245번길 36, 1층(매탄동)	010-7473-6000
40	커피인우드	권선구 금곡로140번길 95-112, 2층(호매실동)	010-4008-8051
41	황기도예	팔달구 행궁로 29(행궁동)	010-6218-1323
42	서정길 커피하우스	장안구 연무로20번길 7, 2층(연무동)	010-9280-7299
43	벌터 온(ON)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1-26(서둔동)	010-4320-0827
44	해인철학원	팔달구 동말로 72(화서동)	010-3181-5507
45	수다쟁이	장안구 장안로 142(정자동)	010-9747-7872
46	카페나루	권선구 세류동 443-22	010-3653-7482

* 주소 및 연락처 등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가게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종단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선 후보도 춤을 추는

숏폼 콘텐츠 시대

“인식만이 실체다. 하지만, 인식은 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짧은
영상의 시대**

요즘은 짧은 것이 대세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긴 콘텐츠는 보지 않는다. 틱톡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릴스, 유튜브의 쇼츠, 네이버의 블로그 모먼트까지, 이를하여 숏폼 콘텐츠(혹은 플랫폼) 진성시대다. 짧은 이유로 전후좌우 없이 결론만 말하니, 직관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과관계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10초 남짓한 콘텐츠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물아일체(物我一體)’에 빗대어 ‘폰아일체’라는 말이 있다. ‘휴대폰과 나는 하나’라는 것. 현대인의 휴대폰에 대한 애착은 ‘노모포비아 Nomophobia(카일브렛지 사전 '2018년 올해의 단어')’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노 모바일 폰 포비아 No Mobile Phone phobia’의 줄임말로 휴대폰 분리불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되며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휴대폰 없이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한창 미디어 시대에 휴대폰으로 무엇을 할까? 주로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데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작은 화면으로 촘촘한 글보다는 쉽게 볼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특히 최근에는 호흡이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이 대세다. 이렇게 수초에서 10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를 숏폼 short-form이라고 한다.

숏폼의 반대는 길이가 긴 롱폼 long-form이다. 숏폼과 롱폼 콘텐츠의 차이는 길이의 차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콘텐츠 소비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시간을 내서 보느냐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볼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모바일에 익숙한 현대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모바일을 본다. 그러므로, 갈수록 콘텐츠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는 숏폼 콘텐츠(혹은 플랫폼)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럼에도 숏폼의 대명사인 틱톡 TikTok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시간 때우기 killing-time 용 15초 짜리 영상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하지만 틱톡 앱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금세 30억 회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뛰어넘는 사용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숏폼 인기의 이유는 모바일 소비 트렌드 이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이유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야기를 콘텐츠로 알리기를 즐기고,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솟폼은 금새 주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숏폼이 온라인 놀이터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코로나19 덕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인터넷 미 Internet Meme도 있다. 본래 미이란 '인간의 유전자와 같이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갖고 번식해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종교나 사상,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를 의미리처드 도킨스 한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 모방의 형태로 전파되는 문화 현상이 이를 닮았다 하여 인터넷 미이라 한다. 기존의 SNS가 단순히 재미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면, 솟폼에서는 그 재미가 인터넷 미으로 재생산되어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확산 과정에서 돈도 벌 수 있으니 인기가 없을 수 없다. 틱톡 구독자 1억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미국의 10대 자매 칠리 다멜리오와 딕시 다멜리오는 80억을 넘게 벌어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짧다'라는 것이 가지는 문제는 '짧지 않다'.

더 짧게,
더 자극적으로

2

인터넷 미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실 솟폼이 나오기 전부터 짧은 콘텐츠가 점점 더 많이 소비되는 현상은 있었다. '폰아일체'가 되자 모바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양이 극단적으로 많아졌다. 사람들은 이내 피로감을 느끼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스낵과 같은 일명 '스낵 콘텐츠'를 즐기게 된 것이다. 가령, 책을 사기 위해 서점에 가는 대신, 3줄로 요약된 스낵 콘텐츠를 통해 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식의 문화-스낵 컬처-가 이미 확산되고 있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 대부분이 짧으니, 틱톡과 같은 솟폼이 새로운 현상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솟폼 플랫폼에는 기존의 SNS와는 다른 가벼움과 재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SNS는 친구 맷기와 같은 관계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솟폼에는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단지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볍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는 재미를 중요시하고 소비하는-'펀슈머Funsumer'-Z세대의 입맛에 딱이다.

더욱이 크리에이터와 같은 거창한 기술이나 지식도 필요 없다. 솟폼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특수효과와 음악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미'를 생산할 수도 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포노사피언스 Phono Sapience인 Z세대는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3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짧은이들로 전통적 권위에 부정적이며 정치에 무관심하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으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무슨 일이든 전문성이 더 중요하고, 과도한 진지함과 무개감보다는 밝고 가벼운 것이 좋고, 성에 개방적이다." 워크맨과 뮤직비디오를 즐기던 90년대 초반, 20세기 말의 신세대, 이름하여 'X세대'에 대한 설명이다. 느낌을 중요시하는 그들은 새로운 소비와 문화를 이끌었다.

짐작건대, 당시의 X세대는 지금의 Z세대보다 더 충격적인 세대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원주민 Digital Native인 Z세대는 너무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다. X세대와는 달리 솟폼 콘텐츠와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다. 고작해야 15초 내외의 영상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보다는 순간을 사로잡는 이미지나 자극이다. 물론 가성비를 즐기는 Z세대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의 정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정체불명의 인터넷 미은 작위적이거나 저질의 콘텐츠를, 콘텐츠 경쟁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자극 콘텐츠의 생산으로 종종 연결된다. 이러한 콘텐츠는 갈등과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중독적으로 소비된다.

특히, 짧은 영상 안에 이것저것을 구겨 넣는 과정에서 욕망과 한계, 가상과 현실이 패치워크 Patchwork: 조각천을 이어 붙여 1장의 천을 만드는 수에 되어 스스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다. 최신 트렌드를 추구하면서도 차별



10초의 조각들로
인식하는 세계

4

SHORT FORM

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는 소위 플렉스 flex, 사치성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크다. 하지만 현실은 한계투성이다. 돈을 모아 집을 사고 결혼을 하는 등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MZ세대에게는 고용과 개인의 재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공허함이나 스트레스를 잊기에 좋은 것이 솟폼에서 재미를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자기 보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정보가 아닌 자극에 의한 소비생활 조장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솟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어디에도 없고, 솟폼을 이용해 잠재고객인 MZ세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만 있다.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든 유행하는 플랫폼에 올리타 인기몰이와 지지를 얻으려 한다. 특히, 진지하고 실천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할 선거판에서 조차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솟폼에서 의미 없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보면 짧은 세대에 "지못미"라 말하고 싶을 지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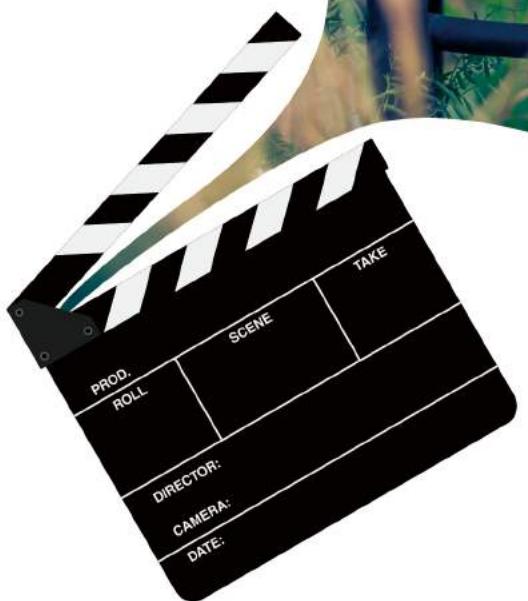
때로는 긴 이야기 보다, 짧은 영상 하나 혹은 좋은 글귀 하나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다. 하지만 솟폼의 소비 패턴을 보면 짧은 것은 '때로는'이 아니라 '언제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대로 '짧은 호흡'의 솟폼 콘텐츠에 익숙해져 기존의 매체와 멀어진다면, 과거로부터 축적된 다양한 형태의 지식체계와 같은 '긴 호흡'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다른 우려는 솟폼 콘텐츠가 우리의 인식체계가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작용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다양한 자극을 지각하고, 인지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우리의 인식체계가 깊은 사려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솟폼 콘텐츠의 파편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근대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 했다. 항상 진지할 수만은 없으니, 솟폼을 통해 재미를 소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사유와 사색 없이는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정호훈 지유기고가 문화칼럼리스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영상대 겸임교수로 브랜드 마케팅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여론 분석 및 마케팅컨설팅 사업을 하며 경영을 비롯해 문화와 심리학 칼럼니스트로서 활동 중이다.

영화와 음악 그 사이의 떨림



영화 음악:

일반적으로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뿐 아니라 대사와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등 많은 효과음 또한 CD에 수록한다는 의미로 Original Sound Track이라고 하며, 줄여서 OST라고 부른다.

코로나19와 삶을 같이하고 있는 요즘 집에서 다양한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그중 넷플릭스나 앗챠,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많아졌다.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해 좋았던 영화를 다시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곤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릴 때는 영화 속 음악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멜로디가 들어왔다. 영화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더빙으로 봐서인지 그 시절 만난 영화 「시네마 천국」(1988)의 감동을 알지 못했다. 그저 토토만 기억할 뿐. 조금씩 자라면서 영화와 함께 어우러진 음악이 가져오는 그 떨림을 점점 느꼈다고 할까.

흔히 우리는 관객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면 음악도 함께 연상될 때, 음악만 들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때 좋은 영화 음악이라고 말한다. 「007」「미션 임파서블」「케리비안의 해적」 같은 매인 배경 음악의 시리즈물은 물론,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연상되는 「죠스 Jaws」(1975, 이하 국외·국내 개봉 연도 기준)의 멜로디 등은 영화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는 힘이 있다. 영화 OST 하면 국내는 물론 중화권 영화 등 너무 많지만, 서양 영화 위주로 몇 가지 추려본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의 애절한 플루트 연주와 원주민 정글에 오보에 소리가 울려 퍼졌던 「미션」(1986), 유대인 학살을 다룬 「션들러 리스트」(1993)의 슬프고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 카스트라토를 처음 알게 된 「파리넬리」(1994)까지 클래식한 음악들이 떠오른다. 이어 「사랑과 영혼」(1990)과 「보디가드」(1992), 「타이타닉」(1997) 등 OST를 부른 가수 또한 유명한 영화들과 「뮬랑루즈」(2001), 「맘마미야」(2008) 같은 뮤지컬 영화들은 물론, 한동안 필자의 벨 소리였던 「코요테 어글리」(2000)의 노래들, 피아노에 앉아 굳었던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던 「말할 수 없는 비밀」(2007)의 대표곡 등이 있다. 또 감미로운 음악으로 더 설렜던 로맨스 영화들도 빼놓을 수 없다. 「비포 선라이즈」(1995) 시리즈, 「이프온리」(2004), 「원스」(2006),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2007), 「비긴 어게인」(2014), 「라라랜드」(2016) 등 주옥같은 영화와 음악들이 수없이 많다. 이 외에도 영화 촬영 도중 사고로 떠난 배우 「폴 워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분노의 질주 7」의 대표곡 'See You Again'과 OST가 더 유명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등 다양한 음악은 많은 영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돌아오는 주말에는 이런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며 감성 충만한 가을 기운에 취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

JP.

글 쓴 이 취향 OST 가 좋 은 영 화 추 천



『어바웃 타임』(2013)

모태솔로 팀이 첫눈에 반한 메리외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며 결혼에 성공하지만 미묘하게 엇갈린 여동생 킷캣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미 비포 유』(2016)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루이자가 일하던 카페를 문을 닫자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환자 월의 간병인으로 6개월간 일하게 되면서 서로의 인생을 향해 스며들게 된다.



『위대한 쇼맨』(2017)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이자, 꿈의 무대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남자 '바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뮤지컬 영화. 돈을 잊고 사업이 망해갈 때 화려한 서커스로 재기하는 그의 성공기가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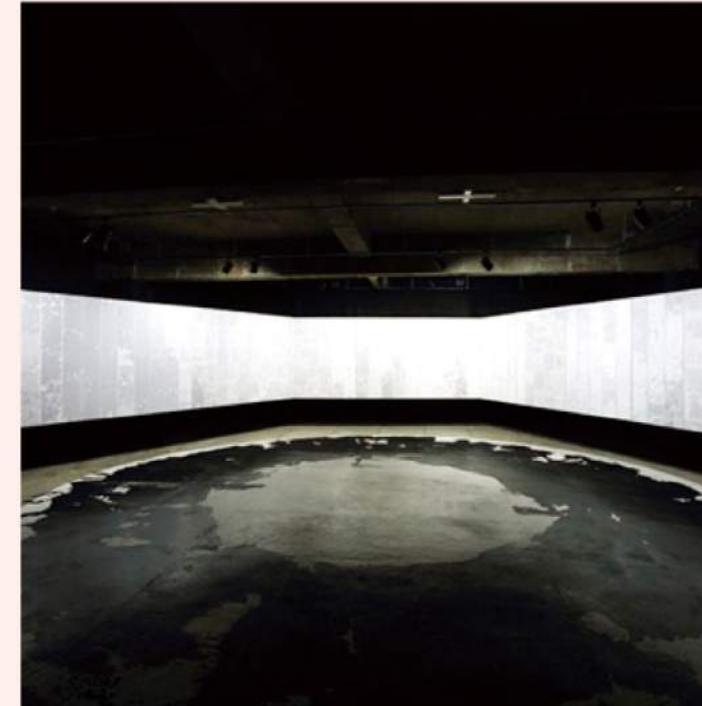
『코다』(2021)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들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디(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 이를 의미) '루비'가 어느 날 노래와 사랑에 빠지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



2



수원문화재단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수원시 청렴 문화 확산 및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김영배 대표이사는 '부패 ZERO, 청렴한 수원특례시 완성'에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청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의 청렴에 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자 진행한 사내 캠페인으로 김영식 화성관광국장과 송기철 문화국장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재단은 캠페인에 이어 청렴 슬로건 선발대회도 열었다. 선발대회는 '청렴'에 관한 슬로건을 직접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는 활동으로 직원 스스로가 청렴 의지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기획경영부를 비롯한 재단 내 9개 부서가 참여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14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배 대표이사와 간부직원 12명이 참여해 부당한 업무지시 균절 및 행동강령 이행사항 준수,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수원아트스튜디오 1기 입주작가 릴레이 전시 개최

푸른지대창작센터 1기 입주작가 아티스트 릴레이 전시가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해 9월 19일까지 열렸다. 7명의 입주작가 7인이 차례로 개인전을 열며 입주 기간 동안 생산된 예술실험, 사유의 결과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열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7명의 작가는 현대 미술의 여러 담론 속에서 예술실험과 사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작업의 정체성을 구체화해왔다. 전시를 통해 작가들이 그간의 작업 결과물과 신작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고자 개최된 자리다.

푸른지대창작센터는 권선구 탑동 시민농장에 위치해 실험목장 실험축사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재탄생 시킨 예술인의 창작공간이다. 재단은 입주작가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결과와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창작 활동을 넓혀주고 있다.

3



4



5



6



랜선 공연장에서 <미스테리우스> 온라인 공연 개최

연일 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원SK아트리움이 <미스테리우스>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미스테리우스>는 국악과 랩, 비보잉과 미디어아트 등을 결합한 복합예술공연으로 작품명처럼 신비하고 색다른 조화를 보여 주는 공연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지난 8월 14일 오후 2시와 5시에 수원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미스테리우스>는 연예 사병 해군 비보이 1기 출신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군 생활을 함께하는 동안 성악, 전통예술, 국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 및 소통 등을 배웠으며, 군 전역 후 한국의 미와 멎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전통 장르에 자신들의 장점인 비보잉을 접목한 작품으로 그들의 화려한 댄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 공연 성료

9월 5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발광엔터테인먼트'의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를 선보였다. 택견꾼 강태진(1884년생)과 그가 사랑하는 여인 청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곡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작품은 '전통액션연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무예 공연 연출의 장인으로 평가받는 방종욱 연출가의 작품이다. 또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으며, '국립국악원 별별연희'에서 최다 관객을 동원한 창작곡이다. 특히, 이번 <아리랑, 택견과 만나다> 공연의 융복합 버전에서는 한국의 대표민요 아리랑과 전통무예 택견을 매개로 우리네 멎, 흥, 신명을 극으로 풀어내고, 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모습을 극대화 했다.

바른샘어린이도서관, '나도 그림책 작가' 운영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은 9월 24일부터 문화예술부와 협업한 '나도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도 그림책 작가'는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의 영감을 그림책에 반영해 어린이들과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기획했다.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하며,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3권의 그림책을 만들고 전시할 계획이다. 전시 일정은 11월 27일부터 2주간 바른샘어린이도서관 3층 전시 공간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 방법과 포스터, 소개글, 소감 모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화성 일대를 방문한 관광객과 행궁동 일원의 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2021 수원화성 관광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21 수원화성 관광객 만족도 및 실태 조사'는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와 대면 설문지 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수원화성 및 화성행궁 방문객 대상으로 여행 목적 및 만족도, 방문형태 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 상인을 대상으로 지역 상생을 위한 의견 청취, 수원화성 및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수원화성 일대 매표소 주변에 배너의 QR 코드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2021 수원화성 관광객
만족도 및 실태 조사



SSAC

SOWON SIGHTSEEING ART CULTURE



싹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

싹ssac트워크 회원이 되어주세요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싹ssac'를 트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문화 예술 기부 회원제도입니다.

문화예술 정기 기부를 통해 싹ssac트워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작을 꿈꾸고 이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어정에 함께해주세요. 싹트워크 회원이 되시면 수원 문화재단 <인인화락> 정기 배송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싹ssac트워크 회원 예우사항

주제	구분	후원액	특별대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연간 회원)	월 3,000원 이상 / 월 30,000원 이상		
	물 회원(연간 회원)	월 10,000원 이상 / 연 100,000원 이상	연 1회 문화꾸러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카드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월간 뉴스레터 발송 • <인인화락> 명단 게재 • <인인화락> 발송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인화락> 광고 게재 • 기획공연 티켓 제공 • 기부자 네이밍 지정 • 기업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기회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싹트워크 회원



(2021. 9. 10일자 기준)

씨앗 회원

고서진	김종찬	박상미	엄주용	이규영	이효진	차광수	최진봉	한정희
권오경	김현의	박완열	윤승기	이선옥	임선화	최영옥	최화섭	황남숙
김영은	박병규	양태인	이경남	이진석	조성면	최정우	한수민	황승연

물 회원

(주)월드프라임	길영배	김승국	김종수	박래현	오수정	주용수	최용진	황연주
강남철	김민규	김유리	김지현	배영애	윤봉기	최영미	홍순희	

햇살 회원

IBK기업은행(동수원지점)	농협수원유통센터
----------------	----------

기부 신청 및 문의



ARS 기부 060-700-1199(통화당 2,000원)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 하단 싹ssac 배너 클릭

현금 기부 기업은행 166-020092-01-446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재)수원문화재단

전화 031-290-3514

홈페이지 give.swcf.or.kr



『인인화락』

2021년 여름호를 읽고서

여름호 독자 이야기

당신의 '환경 사랑 실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혜진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왔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 지구를 보호하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야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느새 제 손에 들려진 커피 테이크아웃 잔, 일회용 수저, 젓가락, 종이컵 등을 바라보면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느껴졌어요. 차일피일 미루다 또 편리함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쓰레기섬 사진을 보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많은 쓰레기가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바다 위 섬에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가볍게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는 휴대용 포크, 수저입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 코로나 시국에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두 번째는 개인용 텀블러! 저는 물을 하루에 2ℓ 가까이 마시는데 처음에는 편하게 종이컵 혹은 생수 페트병을 쓰다가 하루만 해도 많이 나오는 그 쓰레기양을 보고 바로 텀블러를 휴대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도 안 나오고 카페 가면 텀블러 할인도 받고 생수병 사는 돈도 아끼고 일식점조립니다. 세 번째는 우산 커버예요! 우산 커버는 정말 정말 사기 잘했다고 느껴지는 아이템이에요. 커버가 있으니 일회용 비닐도 안 써도 되고 가방에 넣어서 두 손이 자유롭기도 해요~^^

김윤희

분리수거 방법 공부하고 실천하기.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작지만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포장을 최소화한 상품을 구매합니다. 900㎖ 우유 두 개의 포장이 비닐 포장이 아닌 종이 띠지로 되어 있는 상품이나 날개로 구매합니다. 택배로 물건 구매 시 포장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의 문구를 넣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당신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자기계발을 한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가요? (명칭과 이유)

<인인화락> 2021년 가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가을호에 실립니다. 선정된 독자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자기계발을 한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가요?

1

주식 투자를 위한 공부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보다 주식 공부를 해서 투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승기 대리_관광사업부 관광운영팀)

2

발레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

매일 사무실에 갇혀 있는 저를 위해 오십견이 오기 전에, 반 칠십이 되기 전에 운동 하나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예쁜 옷을 입고 하는 발레나… 필라테스… 12월 31일 안에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겠죠?

(김다룡 차장_문화도시센터 정책기획팀)

지식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봤습니다.